

이 책의 사용법

이 책은 청소년 전통예술을 통하여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수련거리이다.

이 수련거리는 기본, 응용, 도움과정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과정은 놀이 또는 음악 등 특정영역만을 소재로 다룬 기존 전통문화활동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술과 극, 무용 등 다양한 전통예술 분야를 이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자료로 구성하였다.

기본과정은 전통예술을 종적 기준인 시간개념과 횡적 기준인 분야와 형태를 기본 축으로 하여 기초적이고 예시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단위활동을 서로 독립적이면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응용과정은 기본과정에서 제시된 각 영역별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그리고 대상을 가상하여 실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예시한 활동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전통예술창조활동이 수련활동으로 구성되는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도움과정은 전통예술창조활동에 필요한 도움자료와 유용한 활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보다 쉽고 재미있는 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련거리의 일반적인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고 아울러, 수련활동 참가자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전통예술창조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개괄적 방법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 기본과정

전통과 과거
전통과 현재
전통과 미래

전통과 과거 N O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미의 세계
가락에 담아낸 정서
전통건축으로 본 아름다움
온몸으로 풀어내는 한과 흥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미의 세계

활동목표

한국화는 그림 그리는 재료나 내용, 형식 등에서 서양화와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림이 담고 있는 기본철학과 세계관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서양화에 관한 지식에 입각하여 한국화를 감상하게 되므로 그 진수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이 활동을 통해 한국화 감상을 위한 기초지식을 알고, 동양적 자연관과 미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화에 접함으로써 전통미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한다.

활동과정

활동 1 몸으로 한국화 그리기

준비물 : 몸으로 표현하기에 적당한 한국화 한 점, 즉석 사진기

활동내용

- ▶ 10명을 한 모듬으로 만든다.
- ▶ 준비된 한국화를 보고 그림 속의 인물과 동물, 산, 계곡, 구름, 집 등의 배경을 자세히 관찰한다.
- ▶ 관찰한 그림을 각 모듬별로 몸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듬원 각자의 개성과 특징(키, 뚱뚱한 정도, 옷차림 등)을 고려하여 역할을 정하고, 어떻게 꾸밀지를 의논한다.
- ▶ 각 모듬 구성원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관찰한 그림을 몸으로 표현하고, 완성되면 모든 모듬원이 힘차게 ‘완성’하고 외친다. 이 때 협동이 잘 될수록 그리고 빨리 마칠수록 많은 점수를 준다.
- ▶ 모든 모듬의 활동이 끝나면 사진을 찍는다.
- ▶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림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한 모듬을 뽑도록 하고, 가장 비슷한 사진일수록 많은 점수를 준다.

- ▶ 각 단계별 점수를 합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모둠에게 상을 준다.



활동 2 그림수필 달력만들기

준비물: 화선지 12장(8절지), 캔트지 12장(4절지), 큰 붓, 가는 붓,
먹, 벼루, 필기 도구, 신문지

$$\frac{0.0}{0.1} \frac{1}{1.1}$$

- ▶ 3명을 한 모둠으로 모두 12개의 모둠을 만든다.
- ▶ 문인화의 기법과 멋을 설명하고, 달력을 만들 때 문인화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강조한다.
- ▶ 각 모둠은 각각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달을 정한다.
- ▶ 모둠별로 자연물(예 : 산, 물, 새, 동물, 안개, 꽃 등) 중에서 자기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제를 한가지씩 정한다.
- ▶ 모둠별로 ‘자기달의 주제’와 ‘인간’을 연관시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화선지에 그림으로 잘 표현하도록 한다. 이 때 지도자는 두가지 주제(인간과 모둠주제)가 그림에 반드시 나타나

야 함을 강조한다.

- ▶ 그림을 완성하면 여백에 그림이야기를 몇구절로 적어넣는다.
- ▶ 4절 켄트지에는 화선지 그림을 붙일 공간을 남겨두고 자기달의 달력을 만든다.
- ▶ 작업이 끝나면 12개 작품을 모아 달력을 완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한다. 다른 모듬의 작품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해당 모듬의 대표가 설명한다.
- ▶ 우리 문인화의 멋과 활동의의를 정리하고 활동을 마무리 한다.



활동자료

□ 한국화 재료

종이(紙) : 그림의 주된 바탕재료이며, 닥나무를 주원료로 한다.

붓(筆) : 붓끝은 뾰족하고, 가지런하며, 붓털이 모인 형태는 둥글고, 튼튼한 것이 좋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선을 그려내는 붓으로

대표적인 것은 황모필인데, 그것은 뽕뽕한 죽재비의 꼬리털에 부드러운 양털을 곁들여 만든 것이다. 그 밖에 붓의 원료가 되는 털로는 새깃, 염소수염, 쥐수염 등이 있으며, 붓대로는 전주와 남원의 현대나무를 으뜸으로 꼽았다.

먹(墨) : 오래된 먹일수록 향기가 좋다. 먹빛이 좋은 것으로는 소나무의 진을 태워 만든 송연묵과 오동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의 그을음을 모아 만든 연묵이 으뜸이다. 황해도 해주와 평안도 양덕이 먹을 만든 곳으로 유명했다.

벼루(硯) : 벼루바닥에 먹을 갈면 먹색이 차지고 끈끈하여 조금도 억세거나 텁텁하지 않고, 연지에 물을 담은 후 며칠을 지나도 마르지 않는 벼루가 좋은 것이다. 중국의 단계연이 가장 유명하며 우리의 것으로는 남포의 쌍돌벼루를 으뜸으로 친다.

□ 한국화의 필법

선염(渲染) : 화면에 먼저 물을 칠하고 마르기 전에 먹이나 채색을 입혀 붓자국이 보이지 않게 하는 필법이다. 축축히 번지는 효과를 이용하여 구름이나 안개 낀 흐릿한 정경을 비롯하여 으스스한 달밤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건필(乾筆) : 붓에 물기를 빼고 소량의 먹으로 그리는 필법이다. 바탕면에 붓질을 중첩되게 사용하여 까실까실한 느낌이며, 황량하고 담백한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기교보다 문인들의 정신성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된다.

윤필(潤筆) : 붓에 진한 먹을 풍부하게 묻혀 그리는 필법이다. 우거진 나뭇잎의 표현 등 대담한 터치가 필요할 때 주로 사용한다.

선담(渲染) : 물기가 적은 붓과 묽은 담묵으로 산의 큰 흐름을 나타내며 짙은 묵색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필법이다.

육채(六彩) : 먹의 색채에는 건조한 먹, 습윤한 먹, 검은색의 먹, 흰색의 먹, 진한 먹, 옅은 먹의 여섯 가지가 있다. 산을 표현하는 데는 이 여섯 가지 먹색이 구비되어야 그 기운이 표현된다. 검은 먹과 흰 먹이 분명하지 못하면 음양의 밝은 운이 없어지고, 진한 먹과 옅은 먹의 구별이 희미해지면 원근감이 없어진다.

발묵(潑墨) : 먹을 쏟거나 뿌리고 떨어뜨리면서 먹의 농담과 수분의 효과에 따라 다양하게 번지는 자유분방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비 온 뒤의 습기찬 자연풍경과 안개 낀 자연의 독특한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적합하다.

적묵(積墨) : 먹을 쌓아서 중첩시키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진한 먹을 중첩시킴으로서 표면 색깔에서 무게를 느끼도록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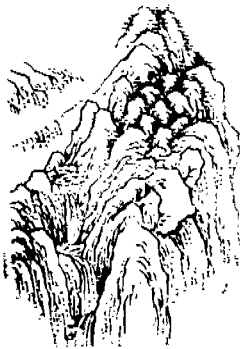
□ 한국화의 시점과 구도

한국화의 역원근법은 시야를 한 곳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시점을 이동하기 때문에 앞쪽의 산뿐만 아니라 첩첩이 쌓인 산과 계곡, 그 바위의 묘사까지도 가능하다.

삼원법 : 삼원은 고원, 심원, 평원을 말한다. 고원(산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시점)은 산의 높이를 강조할 때, 심원(앞쪽의 산봉우리에서 뒤에 있는 산들을 들여다보는 시점)은 산의 깊이나 중첩되는 모습을 강조할 때, 평원(산 위에 올라 멀리있는 산을 바라보는 시점)은 평면적으로 넓게 전개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조감도법 : 새가 공중에 떠서 지상을 비스듬히 내려다 본 시각을 기준으로 경관을 표현하는 원근법의 하나이다.

일각구도 : 산수화 구도의 하나로 그림에 배치된景物들이 화면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배치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을 요점적으로 간결



고원



심원



평원

하게 묘사할 때나 여백에 의한 넓은 공간의 암시와 서정적인 분위기
를 나타낼 때 주로 활용된다.

자료 :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1994.

가락에 담아낸 정서

활동목표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이다. 국악은 정악과 속악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그 중 속악은 서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특유의 가사와 리듬으로 표현한다. 민요, 판소리, 시조 등 다양한 장르의 우리 노래 속에는 민족의 정서와 맛 그리고 멋이 담겨 있다. 깊은 마음자락 속에 숨겨진 민족의 음율을 찾아 내어 국악을 통해 옛 멋과 정취를 느낀다.

활동과정

활동 1 이만큼 멋지게

준비물 : 각도의 민요가 녹음된 테이프, 녹음재생기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우리 민요 중 한 곡을 들려준 후, 민요의 제목과 발생지역에 대해 질문한다.
- ▶ 답을 아는 모듬의 대표가 일어나 민요제목과 어느 도에서 발생한 민요인지를 대답한다.
- ▶ 이 과정을 2~3차례 반복한 후, 형태를 바꿔 민요의 제목을 말하면 그 민요를 아는 모듬은 일어나 노래를 부른다.
- ▶ 이 과정을 몇차례 반복한 후, 우리 민요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 모듬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상을 준다.
- ▶ 마지막으로 각 모듬별로 가장 좋아하는 민요를 선정하여 부른다.

활동 2 판소리 풀어쓰기

준비물 : 판소리음반, 녹음재생기, 판소리가사집, 판소리극에 필요한 소품 약간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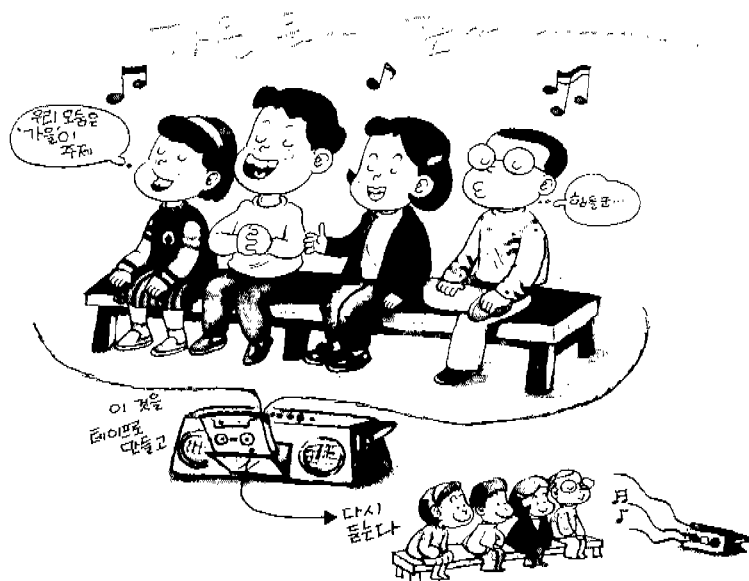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판소리 다섯마당 중 한마당의 일부를 모둠 전체에게 들려준다 (판소리 가사 중 이해하기 쉬운 내용부터 점차 어려운 부분을 택해서 3~4 차례정도 들려준다).
- ▶ 각 모둠별로 판소리의 가사를 받아 적는다.
- ▶ 각 모둠별로 받아 적은 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원래 가사와 대조한다.
- ▶ 받아적은 가사에서 틀린 부분이 가장 많은 모둠에게 판소리 원본가사를 주어 각자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도록 한다.
- ▶ 각 모둠별로 판소리의 탄생배경, 해학과 풍자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각자 잘 알고 있는 판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활동 3 그렇게 길어요

준비물 : 도화지, 시조테잎, 녹음재생기, 필기도구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시조의 제목을 모둠별로 하나씩 정한다(주제는 봄, 여름, 우정, 사랑, 이별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 ▶ 각 모둠별로 제목에 맞는 시조를 짓는다.
- ▶ 모둠별로 지은 시조를 읊기 위한 곡을 붙인다. 곡을 붙일 때는 길게 뽑는 음과 짧게 소리내는 음을 구별하여 나타낸다. 예를 들어 “가을은 깊어가고 마음 마저 고요한데...”라는 시조를 지었다면 “가을(단음)은(장음) 깊(장음, 찍고)어가(단음)고(장음) 마음(단음)마(장음)저(장음) 고(단음)요(장음)” 등으로 구분한다.
- ▶ 각 모둠별로 창작한 시조내용에 곡을 붙인 시조를 소리내어 읊어보고, 모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몇차례 반복연습한다.



- ▶ 연습이 끝나면 한 모듬씩 전체 모듬앞에서 읊는다.
- ▶ 가장 잘 읊은 모듬에게 상을 주고 우리 시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한 후, 시조테잎을 들으면서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자료

□ 민요의 종류

경기민요 : 아리랑, 도라지타령, 널리리야, 사발가, 노들강변, 군밤 타령, 오봉산타령, 한강수타령, 양산도, 창부타령, 경복궁 타령 등

충청도민요 : 흥타령, 방아타령 등

전라도민요 : 새타령, 육자배기, 잦은 육자배기, 농부가, 잦은 농부가, 진도아리랑, 까투리타령, 강강수월래, 화초사거리 등

경상도민요 : 꿩지나칭칭나네, 성주풀이, 보리타작노래, 밀양아리랑, 뱃노래, 잦은 뱃노래, 울산아가씨, 담바귀타령, 골페타령 등

강원 및 함경도민요 : 신고산타령, 궁초맹기, 강원도아리랑, 한오백년, 정선아리랑, 애원성 등

황해 및 평안도민요 : 뭉금포타령, 산염불, 잣은염불, 긴난봉가, 해
주아리랑, 긴아리, 잣은아리, 수심가, 엮음수심가 등
제주도민요 : 타작노래, 이야홍타령, 해녀뱃노래, 뭉글레당실(오돌
또기) 등

□ 판소리 다섯마당

춘향가

춘향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조선 영조 때 천안의 목천 사람 유진한이 쓴 <만화집>에 한문시 200구로 적힌 춘향가의 사설이 있고 같은 시대 남원 사람 양주익이 쓴 <무극행록>에 “병자 35세 저춘몽연”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이미 숙종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긴 사랑가의 한 대목

“만첩청산 늙은 범이 살진 암캐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덩썩 빠져 먹든 못허고, 으르르르르르 어형 넘노난 듯, 단산 봉황이 죽 실을 물고 오동 속을 넘노난 듯, 북해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간에 넘노난 듯,··· 내 사랑 내 사랑 내 알뜰 내 간간이지야. 오호어, 둥둥 내가 내 사랑이지야,··· 너는 죽어 꽃이 되되 벽도 홍 삼춘화가 되고 나도 죽어 범나비되되 춘삼월 호시절에 내 꽃송이를 내가 덩썩 안고 너울너울 춤추거드면 네가 날인 줄 알으려무나...”

심청가

심청가가 언제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순조 때 송만재가 쓴 <관우회>에 심청가의 내용이 적혀 있고 일제 때 정노식이 쓴 <조선창극사>에 순조 때 명창 방만춘이 당시 많이 불리던 심청가를 다시 정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영조시대부터 심청가가 판소리로 불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몸을 팔았다는 말을 듣고 심봉사가 통곡하는 대목

“허허 이것이 웬말이나. 이것이 웬일이여. 눈을 팔아 너를 살디,

너를 팔아서 눈을 뜨면 뉘를 보라 눈을 떠야. 못허지야, 못허. 철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 설움을 네 들어라. 너의 모친 너를 낳고 칠일 안에 죽은 후에 앞 못 보는 늙은 아비 품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집 다니며 동냥젖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이만큼이나 장성, 묵은 근심 헛 근심을 널로 하여 잊었는디, 이게 웬말이나, 못허지야.···네 이 무지한 놈들아, 철 모르는 내딸 청이 꼬옴꼬옴 꼬여다 값을 주고 샀단 말이나.···”

홍보가

홍보가는 순조때 송단재가 쓴 <관우회>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부터 많이 불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 놀보가 지리산 몽둥이로 홍보를 때리는 대목
“놀보놈 거동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위에 번쩍 추겨들고, 어따 이놈 홍보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살기 내복이요 못살기도 네팔자, 굵고 벗고 내모른다. 벼말을 주자한들 마당에 쌓인 노적 다물다물이 쌓였으나 네놈 주자고 노적 떨어, ···싸래기나 주자 한들 황계 백계 수백마리가 퍽퍽 허고 찌찌 우니 너 주자고 닭 굵기며, 몽근재 주자 한들 우리 안 폐되어야지 수십 마리가 들었으니 네놈 주자고 돌 굵기라. 오곡이 썩어나고 궤돈이 녹이 나도 너 줄 것은 없다.···”

수궁가

판소리 수궁가는 <별주부전> <토생전> 등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찬 것으로 <토끼타령> <토별가>라고도 한다.

- 별주부에 얽혀 다시 세상에 나온 토끼가 별주부에게 욕하는 대목
“네기를 붙고 받기를 할 녀석,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나. 미련하더라, 미련을 하더라. 너의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 실겁기 날 같고, 내 미련키 너의 용왕 같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밑궁이 셋이 아니더라도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으로 나는 간다.”

적벽가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웅장하고 장엄하며 거센 표현이 많아 여창들은 거의 부르지 않는다.

- 유비·관우·장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가는 ‘삼고초려’ 대목
“당당한 유현주는 신장은 팔척이요, 얼굴은 관옥 같고 자고기이 하니 수수과슬 영웅이라. 적토마상 앞서시고, 그뒤에 또 한사람의 위인을 보니, 신장은 구척이나 되고, 봉의 눈 삼각수 청룡도를 비껴들고, 적토마상에 늑늑히 앉었으니 운장일시가 분명하고, 그뒤에 또 한사람을 보니 신장은 칠척오촌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고리눈에 사모장창을 눈우에 번뜻 들고, 세모마상에 두렷이 앉었으니 진삼국지맹장이라. 당당한 거동은 산하를 와르르 무너낼 듯, 세상을 모도 안하에 내려다보니 익덕일시가 분명쿠나...”

□ 시조의 종류

평시조 : 가락이 하나로 여러 사람이 들어앉아 같은 가락에 노랫말만 달리해 부르는 것. 또한 노랫말의 마지막 어구인 ‘하여라, 하리오, 하느뇨’ 등 석자를 생략한다.

지름시조 :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조에서 초장을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 특징이 있고 중장과 종장은 평시조와 같다.

사설시조 : 평시조나 지름시조보다 노랫말이 길고 잔가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자료 : 재미있는 국악길라잡이. 1994.
초·중·고 교사를 위한 전통음악 학습지도법. 1990.
시조의 이론과 실제. 1985.

전통건축으로 본 아름다움

활동목표

우리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이다. 선은 선대로 색은 색대로 심지어 조형미까지도 자연과 함께 한다. 전통가옥의 지붕과 처마, 도톰한 곡선, 그리고 초가집과 숨죽이며 날아가는 듯한 기와집의 조화 그 너머로 보이는 아늑막한 산들 또한 흙마당 한켠에 놓여있는 살림살이들 모두 자연과 생활과의 조화 속에 놓여있다. 사라져가는 전통의 조형 가운데서 선현들의 삶의 체취와 생활의 지혜를 배운다.

활동과정

활동 1 아름다운 생활터전

준비물 : 전통건축법에 관한 책, 선정한 건축물의 소개서, 사진기, 색연필, 도화지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활동공간에 근접해 있는 사찰, 성곽, 궁궐, 서원, 향교 등 우리 전통건축미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 ▶ 각 모둠별로 건축양식 중 흥미로운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즉석사진으로 찍는다.
- ▶ 준비한 도화지에 그림 또는 사진을 붙이고, 붙인 건축양식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느낀 점 등을 적는다.
- ▶ 전체가 한 곳에 모여 모둠별로 작성한 내용을 대표가 나와 설명한다.
- ▶ 활동이 끝나면 다시 전통건축물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건축미를 감상한다.

활동 2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물 : 전통공예품 또는 생활용품 실물, 그림 또는 사진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우리 전통공예 양식을 보여주는 공예품 또는 생활용품의 실물, 그림 또는 사진을 준비한다.
- ▶ 전체가 모여 앉아 지도자가 준비된 실물이나 자료 중 하나를 제시하면, 그것의 용도를 알고 있는 모듬은 그 물품의 용도에 대해 답하고 가장 빨리 대답한 모듬에게 점수를 준다(준비된 자료가 많을 수록 퀴즈게임을 오래할 수 있다).
- ▶ 퀴즈게임을 마친 후,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모듬에게 우리 공예품을 하나씩 시상한다.
- ▶ 참가자들이 흥미를 갖는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아름다운 요소와 느낀 점을 각자 이야기한다.



활동자료

☐ 전통생활공예품

반다이 : 전면 상반부를 상하로 개폐하는 문판을 가진 단층의류케.

지방에 따라 의류뿐만 아니라 귀중한 두루마리문서·서책·유기류·제기류 등의 기물을 보관, 저장하는 가구로도 사용하였다. 서민층에서는 반닫이 위에 이불을 얹거나 기타 가정용구를 올려놓고 실내에서 다목적으로 쓰는 집기였다.

등잔걸이: 등잔은 식물성, 동물성 또는 광물성인 석유 등의 기름을 연료로 불을 켜는 그릇임. 등잔걸이는 이 등잔과 등잔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다양한 모양이 있다.

평상: 나무 또는 대나무를 사용하여 그 위에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만든 대. 방 안에 놓고 주로 잠을 자는데 사용하는 침상과 마당이나 뜰에 놓고 사람이 앉거나 걸터앉는 데 사용하는 뜰마루가 있다.

약틀: 약탕기에 끓인 약재를 올려놓고 눌러 짜던 나무로 만든 기구. 기름을 짜던 기름틀이나 국수를 누르던 국수틀과 모양이 비슷하다. 위판과 밑받침 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판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누름판 역할을 하고, 아래의 받침판에는 3, 4개의 다리가 있으며, 약을 담아 짤 수 있는 홈과 구멍이 있다.

얼레빗: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빗. 반달모양으로 생겨서 월소(月梳)라고도 한다. 얼레빗은 빗살이 성긴 것으로 긴머리를 빗질하는데 필수적인 빗이다. 보통 얼레빗으로 대강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한 뒤 참빗으로 빗는다. 크기는 다양하며 빗살 역시 성긴 것과 촘촘한 것이 있다. 아주 작은 얼레빗은 마무리 손질에 주로 사용하고, 휴대하고 있다가 머리가 흩어지면 간단히 정돈하기도 하였다.

동경: 구리로 만든 거울. 동판의 표면을 잘 다듬고 문질러 얼굴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뒷면에는 아름다운 문양이나 길상어 등을 새겨 사용하였다. 동경은 근세에 이르러 유리거울로 대체될 때까지 사용되었으며, 그 뒷면에 있는 무늬나 글자 등은 당시의 공예기술·문양·사상·신앙 등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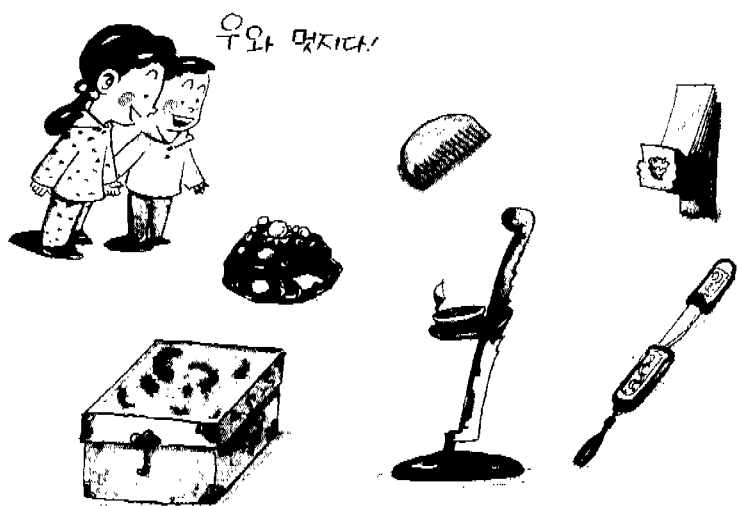
함: 의류·패물 등을 넣어두는 나무상자. 표준치수는 높이 15~50cm, 앞너비 40~130cm, 옆너비 20~60cm. 특히 혼인 때 신랑측에서 채단과 혼서지를 넣어 신부측에 보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귀 : 목재를 찍어서 깎고 가공하는 연장. 도끼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도끼는 날이 자루에 평행하게 박혀 있는데 반하여 자귀는 자루와 직각방향으로 박혀 있다. 원목을 도끼나 큰 톱으로 중형으로 잘라낸 것을 각재나 판재로 가공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자귀날은 자루에 직접 박지 않고 나무토막에 날을 박아서 이 나무토막 중간에 자루를 끼우게 된다.

화관 : 조선시대 궁중의식 및 양반가의 혼례 등에 예복과 함께 착용한 머리장신구이다.

장도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호신용이나 여러 가지 용도를 겸한 장식용의 작은 칼이다.

고비 : 벽에 걸어두고 편지나 두루마리 등을 꽂아두는 소형의 가구이다.



자료 :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온 몸으로 풀어내는 한과 흥

활동목표

우리 춤은 춤을 추기 위해 만들어진 춤이 아니다. 삶과 노동에서 흘러나오는 가사와 소리에 따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몸의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 춤은 희노애락의 정서가 응축되어 표현된다. 삶의 몸짓을 통해 기쁨과 슬픔 모두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선조들의 신명을 안다.

활동과정

활동 1 마음따라 몸따라

준비물 : 비디오기기, 우리춤이 담겨있는 비디오테이프, 녹음재생기, 국악 기악곡테이프

활동내용

- ▶ 10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각 모듬의 대표가 나와서 5분 내외의 우리 춤이 담겨있는 비디오테이프를 본다. 남은 참가자들은 정좌를 하고 가야금 또는 대금 산조를 듣는다.
- ▶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한 후, 각 모듬의 대표는 모듬으로 돌아가 앉는다. 전체 모인 자리에서 각 모듬별로 춤을 추는 순서를 정한다.
- ▶ 뽑힌 순서대로 각 모듬별로 나와 대표가 추는 순서에 따라 춤을 춘다.
- ▶ 각 모듬별로 한 차례씩 순서가 돌아가고 난 후, 국악의 기악곡을 한 곡 들려 준다.
- ▶ 각 모듬에서 추천한 한 참여 청소년이 기악곡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 춤을 춘다.
- ▶ 전체가 모여 가장 잘 하고 성실히 참여한 모듬을 뽑아 상을 준다.

활동 2 무언의 움직임

준비물 : 북, 장구, 팽과리, 징

활동내용

- ▶ 3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춤을 추는 사람과 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전등을 밝히고 다른 실내 전구를 꺼서 어둡게 한다. 각 모듬별로 순서대로 나와서 두 사람은 춤을 출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은 타악기(북, 장구, 팽과리, 징 등)를 연주할 준비를 한다.
- ▶ 타악기를 가진 사람이 한번씩 악기를 칠 때마다 두 사람은 장단에 맞추어 동작을 취한다.
- ▶ 악기의 장단은 처음에 한 음씩 끊어서 치고 점차 연속적으로 연주한다.
- ▶ 한 모듬이 3분 가량 연주를 하고 나머지 모듬은 각 모듬의 공연을 관람한다.
- ▶ 이런 방법으로 되풀이 하여 전체 모듬의 연주가 끝나면 전구를 모두 끄고 다같이 일어나 조용한 가운데 각자 우리 춤사위를 표현한다.
- ▶ 춤이 끝난 후 각자 춤을 추었던 느낌을 이야기한다.



활동자료

□ 한국 춤의 특징

삶의 경험과 생활에서 느끼는 감흥과 신명의 집약된 표현이 무용에
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춤은 노동과 예술의 근원적인 일치라는
세계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춤은 일이나 굿, 놀이, 연극을
하나의 총체적인 것으로 모으는 연결의 고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흩어져 있는 인간의 활동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춤사위 하나하나에 힘이 응축되어 있고 또한 구성에서도 힘
을 응축시키는 형태로 절대로 힘을 바깥으로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춤은 ‘정적이다’, ‘한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면
만을 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춤에는 표현의 정확성과 자
유분방함과 역동성이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운 생활감정
에서 우러난 고요한 역동성이다. 이러한 고요한 역동성은 ‘장단을
먹어 주는’ 대목에서 맺힌 한을 풀어 주는 이완일 경우도 있고 풀
린 것을 맺어 주는 긴장일 수도 있다.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
하여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데에 한국 춤의 묘미가 있다.

□ 한국 춤의 종류

한국 춤은 크게 궁중무용, 의식무용, 민속무용, 향토무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춤의 목적이나 기원 등에 근거하여 이
루어진다.

대표적인 궁중무용에는 춘앵무, 처용무가 있으며, 궁중무용은 개인
과 사회 안의 여러 집단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본 질서를 유
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당시의 현실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활동의 산
물로, 곧 실용성의 의미가 결부된 춤으로 형성되었다. 궁중무용은
절제된 동작의미를 추구하며 선을 중요시한다.

의식무용에는 문묘악과 종묘악, 작법, 나비춤, 바라춤, 뱀고춤이 있
다.

민속무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살풀이, 승무, 강강술래, 농악, 무속

춤 등이 있다.

향토무용의 대표적인 것에는 탈춤이 있다.

자료 : 한국의 춤. 1994.

전통과 현재

다양하게 꾸미는 민화모음
민요로 담아내는 우리의 삶
내 생활소품 속의 전통미
우리가 펼치는 마당놀이

다양하게 꾸미는 민화모임

활동목표

이름없는 서민들의 심성과 그들의 진솔한 삶을 해학과 풍자로 거칠고 어리숙하게, 때로는 활달하고 발랄하게 표현했던 민화를 직접 그려보기, 상상하기, 이야기만들기 등의 과정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과정

활동 1 우리 시대의 풍속화 그리기

준비물 : 풍속화 몇점, 사진기, 화선지, 먹, 물감, 붓, 기타 그림도구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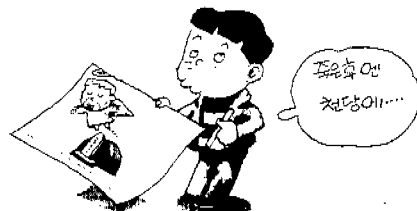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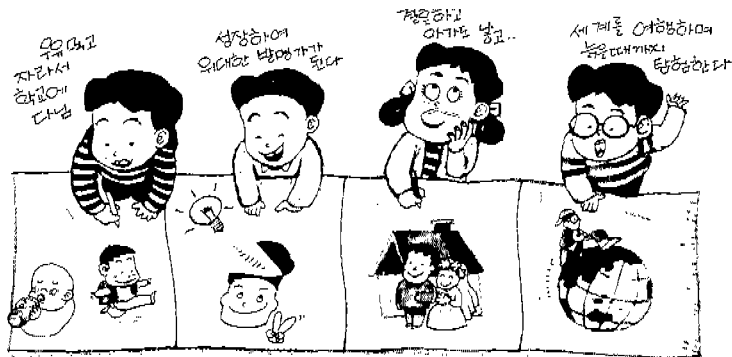
- ▶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우리 조상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담은 풍속화를 보여주고 그림 속에 나타난 사회상을 이야기한다.
- ▶ 전통 풍속화의 맥을 이어온 화가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시대의 풍속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전에 본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한다.
- ▶ 모둠별로 일터, 시장, 공원 및 기타 여러 장소를 찾아가서 우리 시대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을 사진기에 담아오도록 한다.
- ▶ 모둠별로 밖에서 찍어온 사진의 모습과, 평소에 생각했던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잘 결합시켜 화선지에 ‘우리 시대의 풍속화’를 그린다.
- ▶ 그림이 완성되면 전체 앞에서 발표하도록 하고, 여러 장소의 그림을 모아 ‘우리 시대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공동작품을 완성한다.

활동 2 나의 일생 - 평생도 그리기

준비물 : 평생도그림, 화선지, 붓, 먹, 물감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대표적인 평생도를 전체적으로 감상하고,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의 탄생, 성장,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 모든 참여청소년은 자기의 탄생, 성장과정, 바램과 소망을 담은 평생도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한다.
- ▶ 각자 구상한 자신의 평생도 중 일부(예를 들면 어릴적 모습, 초·중·고등학교 시절, 청년시절, 성공한 모습, 40세 때, 부모가 된 모습, 늙었을 때, 죽은 후 등)를 그린다.
- ▶ 그림이 완성되면 모듬별로 각자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 모듬 전체적으로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하나씩 선정하여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여러 과정의 그림을 연결하고 이야기로 꾸며본다.
- ▶ 평생도를 그렸던 우리 조상들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보고 활동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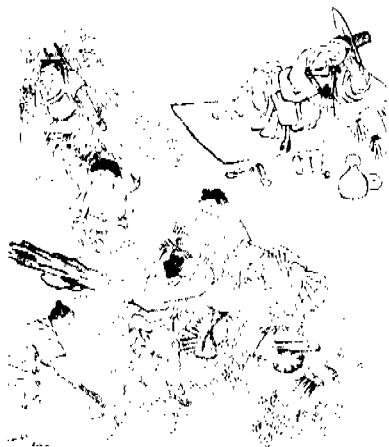


활동자료

□ 풍속화

풍속화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의 정경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풍속화의 대표적 화가인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은 배경을 통해서 당시의 살림·복식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상을 풍부한 해학적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풍속화의 맥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화가의 한사람인 박수근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서민의 일상 모습이다. 일하는 여인, 장터의 여인, 할아버지와 손자, 아기를 업은 소녀, 할머니, 행인, 공기놀이하는 소녀들……. 박수근의 작품을 자세히 보면 그림의 주인공은 연약하지만 어진 마음으로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따스한 온정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다.



□ 평생도

옛날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내용을 태어나고 자라서 벼슬하고 죽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놓은 그림이다. 주로 여덟 폭 병풍으로 되어 있는 평생도의 주요 내용은 돌잔치, 글공부,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꽃고 사흘 동안 거리를 순회하는 유가놀이, 사모관대 차림으로 말을 타고 결혼하러 가는 신행길, 지방의 현감이 되어 부임하는 감사도입, 다스리는 마을을 관내순시하는 그림 및 환갑잔치를 하고 늙어서 왕의 예우를 받는 봉조하의 그림들이 주제로 되어 있다.



자료 :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1996.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1994.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민요로 담아내는 우리의 삶

활동목표

민요는 부르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가사나 음정 곡조를 다르게 부를 수 있으며, 노랫말에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담아도 좋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체험을 민요의 형식을 통해 꾸밈없이 표현해 본다.

활동과정

활동 1 신세대 아리랑

준비물 : 민요테잎, 녹음채생기, 장구나 북 등 장단을 맞출 수 있는 전통악기

활동내용

- ▶ 4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지도자의 장단에 맞추어 구전 아리랑 민요를 전체적으로 흥겹게 부른다.
- ▶ 오늘날에 와서 가사, 음정, 곡조가 변형된 아리랑 곡을 감상케 하여 창작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민요의 원형이 있고 현대에 와서 새롭게 변형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 것이면 반드시 ‘아리랑’이 아니어도 좋다.
- ▶ 변형된 아리랑곡을 감상한 후 모듬별로 자기 모듬에서는 어떤 주제(예 : 어머니, 친구, 시험, 미팅, 숙제, 연애편지, 학교길, 별밤 등)로, 어떤 내용을 담아 아리랑곡을 재창작할 지를 결정한다. 가사는 물론이고 곡을 변형해도 좋으며, 빠르기표 변형해도 좋다.
- ▶ 모듬구성원 각자가 한소절 또는 1절씩 나누어 개사한다.
- ▶ 창작 아리랑곡이 완성되면 전체 참여청소년 앞에서 발표한다.
- ▶ 주제가 분명하고, 청소년의 삶의 내용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

을 선정하여 상을 준다.

- ▶ 원래곡과 창작곡을 불렀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 지 이야기하고 활동을 정리한다.

활동 2 우리악기로 팝송을 부르자

준비물 : 장구 또는 북

활동내용

- ▶ 전체 참가자를 4개 모둠으로 나눈다.
- ▶ 모둠별로 세마치, 굿거리, 자진모리, 중모리 장단 중 하나를 익힌다.
- ▶ 자기 모듬의 장단에 맞는 민요를 한두곡씩 불러본다.
- ▶ 민요 외의 대중가요, 동요, 팝송, 고전음악 중 자기 모듬의 장단에 맞는 노래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본다. 가능한 많은 노래를 찾는 것이 게임을 하는데 유리하다.
- ▶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모듬마다 돌아가며 노래를 부른다.
- ▶ 자기 모듬의 장단에 잘 맞는 노래일수록, 모듬구성원 전체의 화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중복되지 않는 노래를 가장 늦게까지 부를수록 많은 점수를 얻어 승리한다.



□ 민요 변형곡의 예

김영동이 변곡·개사한 한오백년

1.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는 말어라
이팔청춘 이대몸이 백발되기 원통타
 2. 날 버리고 가려거든 정 마저 가려마
몸은 가도 정만 남아 애간장 끓누나
 3.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서러워마라
명년삼월 봄이오면 다시 또 피지
 4.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온 서산 검은 구름이 다 모여드네
- 후렴 :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오백년 살자는 데 왜 성화요

□ 전통음악 창작곡의 예

- 사랑·정을 노래한 것 : 봄비에게(김영동), 가네(김영동), 사랑가(김영동), 어디로 갈꺼나(김영동), 조각배(김영동)
- 미래의 희망을 담은 것 : 미래의 찬미(김영동), 손모아 마음모아(김영동)
- 외로움·슬픔을 담은 것 : 나그네(김영동)
-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한 것 : 뜨락에 낙엽이 지면(김영동)
- 흥겨운 것 : 산도깨비(김영동)
- 황병기의 가야금연주곡 : 숲, 가을, 석류집, 봄, 가라도, 침향무, 미궁

자료 : 어린이 국악교육의 실제. 1994.

내 생활소품 속의 전통미

활동목표

전통예술품에 쓰인 재료나 문양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전통예술의 정신을 자기만의 멋과 개성을 살린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본다.

활동과정

활동 1 예쁜 전통무늬 티셔츠 만들기

준비물 : 염색할 무색 티셔츠, 색깔있는 초크, 붓, 전통염료 색깔별로 몇가지, 파라핀, 염색할 그릇, 파라핀 녹일 그릇, 다리미 1개, 신문지 약간, 예시할 전통문양 그림 또는 사진 약간

활동내용

- ▶ 4~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모둠별로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전통문양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설명한다.
- ▶ 참여청소년 각자는 자기가 그릴 문양을 구상한다. 예시된 전통문양을 그대로 본떠도 좋고 응용해도 좋다.



- ▶ 구상한 문양을 염색할 티셔츠에 초크로 그려넣는다.
- ▶ 모듬별로 각기 다른 색깔로 염색한다(염색과정은 활동자료 참고).
- ▶ 모듬별로 잘된 것을 뽑아 자기가 그린 문양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을 그린 이유를 설명한다.
- ▶ 전통문양을 이용하여 옷을 염색했을 때 아름다운 점과 전통문양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생활용품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활동 2 서각(전각) 제작하기

준비물 : 나무, 인구(나무를 고정시키는 틀), 조각칼, 사포, 먹지, 기름종이, 작은 술, 샤프펜슬

활동내용

- ▶ 전체 청소년에게 준비된 재료를 나누어준다.
- ▶ 사포에 물을 적셔, 나무의 새길 면을 가볍게 원을 그리면서 10~20회 문질러 준다. 너무 오래 갈면 곡면이 생기므로 주의한다.
- ▶ 기름종이 위에 나무의 새길면과 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리고 자기 이름, 호, 또는 좋은 구절을 배치한다.
- ▶ 나무 위에 먹지를 놓고 문자를 쓴 기름종이를 그 위에 놓는다.



- ▶ 문자의 외곽선을 따라 샤프펜슬로 힘을 주어 그린다.
- ▶ 조각칼을 사용하여 나무면에 그려진 문자나 배경을 파낸다.
- ▶ 윤곽선 부분에 깨진 것 같이 흠집을 내는 격변처리를 한다.
- ▶ 나무면을 두드리듯 위아래로 탄력을 주어 움직여 인주를 문힌다.
- ▶ 나무면에 힘을 끌고루 주어 종이 위에 눌러 찍어낸다.
- ▶ 찍힌 것을 보고 수정한다.
- ▶ 작품이 완성되면 종이에 찍힌 서각을 전시하고, 성명인, 호인, 두인 중에서 잘된 것을 골라 시상한다.

활동자료

□ 쉽게 볼 수 있는 문양과 상징성

길상문자

만(卍) : 석가모니의 가슴(심장), 인종, 인간이 회구하는 행복, 무한, 많은 것, 모든 것, 1만

사계절의 꽃과 달

매화 : 1월과 겨울, 선비의 깨끗한 기풍

복숭화꽃 : 2월, 아름다운 미인, 젊은 여자

모란 : 3월과 봄, 부귀와 명예, 부부애, 여성미, 번영

앵화 : 4월, 여성미

목련 : 5월, 여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

석류꽃 : 6월, 자손번식

연꽃 : 7월과 여름, 창조력, 고난 속에 피어난 순수, 여인, 천재, 선비정신

배꽃 : 8월, 어질고 선한 정치, 청초한 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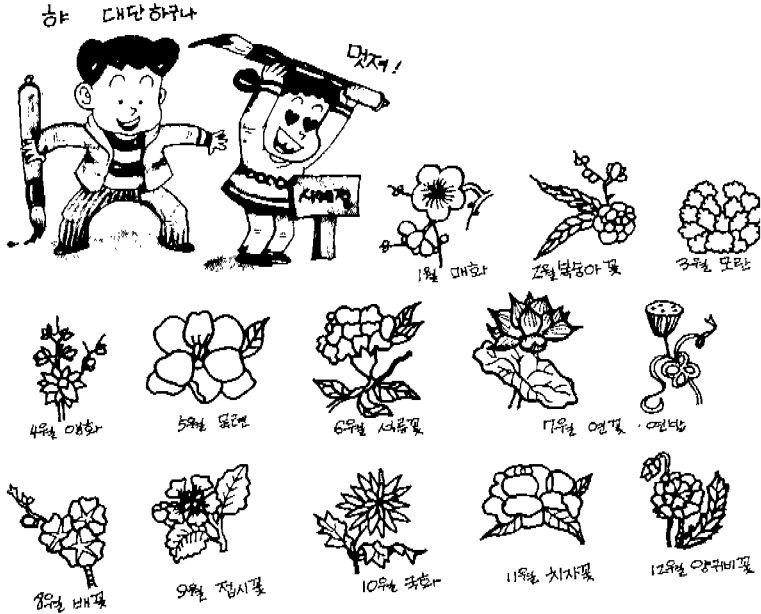
접시꽃 : 9월, 관직의 승진, 차페로 꽃이 피어 오른다는 데서 유래

국화 : 10월과 가을, 기쁨과 안거, 공직에서의 은퇴, 숨은 선비

치자꽃 : 11월, 신중함, 열매의 끝이 입을 다문 모양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

양귀비꽃 : 12월, 요염한 미인



새·곤충·동물

용 : 황제, 음양, 농경사회. 궁전, 절, 장신구 등의 장식에 많이 쓰임
 봉황 : 여황제, 미, 선, 은화합, 변영, 평화, 태양, 풍요, 선정. 궁전, 절 등의 장식에 많이 쓰임

거북 : 장수, 힘, 인내, 영원, 장수. 북쪽 수호

기린 : 자비, 공정함, 상서로운 징조, 무관 1품



박쥐 : 장수, 번영, 행복

나비 : 기쁨, 부부의 금슬

학 : 산신령, 장수

사슴 : 장수와 관록, 명예, 학문을 통한 입신. 뿔은 지위를 얻기 위한 싸움을 의미

나무·열매

영지 : 불로장생, 일명 불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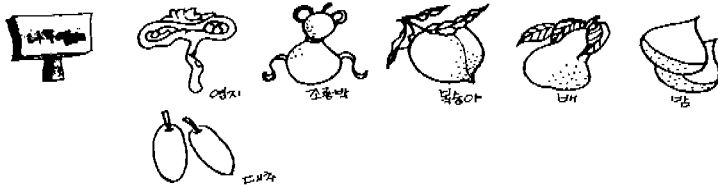
조롱박 : 신비, 점술, 수명, 의술, 마술, 친구·형제의 우애

복숭아 : 결혼, 봄, 불멸, 장수

배 : 순수, 정의, 장수, 현명하고 어진 정치

밤 : 효도. 새순이 나면 클 때까지 양분을 보충하므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봄

대추 : 자손의 번식. 씨앗이 단단하고 열매가 많이 달리는 데서 유래



□ 염색하는 과정

- ① 준비된 흰색 티셔츠를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담귀 이물질들을 제거한다(또는 비눗물에 30분 가량 삶기도 한다).
- ② 깨끗이 행군 후 비틀어짜지 말고 빨래집게로 집어 햇볕에 말린다(일정이 급한 경우 상기 과정은 생략해도 좋다).
- ③ 파라핀을 그릇에 넣고 가열하여 녹인다.
- ④ 녹아 있는 파라핀을 붓으로 찍어 염색할 티셔츠의 밑그림에 입힌 후 바짝 말린다.
- ⑤ 물과 염료를 혼합하여 그릇에 담아놓고, 여기에 ④의 티셔츠를 담근 후 말린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 ⑥ 완성되면 티셔츠의 양쪽면에 신문지를 놓고 다리미로 다려 파라

핀을 제거한다.

□ 전통적인 염색

염색이란 염료나 안료 또는 그 밖의 약품을 사용하여 피염물에 색채를 염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대에는 의복의 색상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별했기 때문에 색채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황제나 왕은 노란색으로, 귀족은 자주색,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 등의 순서로 계급이 높을수록 진한 색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진한 색이 염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염색법에는 색소의 종류에 따라 자연염료 염색법과 합성염료 염색법이 있다. 염색에 사용된 색료는 1856년 인조염료가 합성되기 이전까지는 천연염료만 사용되었다. 천연염료는 그 채취원에 따라 동물염료, 광물염료, 식물염료로 분류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식물염료는 약재와 마찬가지로 식물종류에 따라 뿌리, 줄기, 껍질, 잎, 꽃, 씨 등의 부위별로 이용되었다.

단색성 식물성 염료의 염색방법

- 직접염색법 : 치자, 울금, 황벽나무, 황련 같은 염료식물에서 색소를 추출한 뒤 피염물에 직접 흡수시키는 방법
- 환원염색법 : 쪽같은 불용성 색소에 환원제를 써서 물에 용해시켜 염색한 뒤 염욕에서 건지면 공기 속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발색되어 본래의 색으로 환원되는 것
- 특수염색법 : 잇꽃(수용성 황색색소와 불용성 홍색색소가 함께 함유되어 있음)과 같은 특수한 성질의 식물염료 염색법. 홍색소는 알칼리수에 용해되고 산을 가하면 침전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 성질을 이용하여 추출된 색소로 염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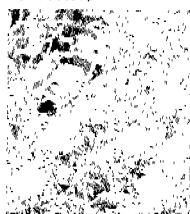
매염제는 염색을 도와주고 색깔이 잘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으로 잣물(회즙), 석회, 명반, 철장 등을 이용하였다.

염색으로 문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교힐(홀치기염), 납힐(납방염법), 협힐(문양판을 양쪽에서 누르는 법) 등이 있다.

색깔별 염료

- 홍색 : 홍화(잇꽃)
- 자색 : 지치(의 줄기)
- 남색 : 쪽잎
- 옥색 : 쪽빛을 들이고 난 끝물을 체로 거르고 얼음물과 섞어 염색
- 초록색 : 느티나무꽃
- 연두색 : 왜황련, 황벽나무
- 노란색 : 치자
- 붉은색 : 쪽두서니
- 겨자색이나 카키색(매염제에 따라) : 개웃나무나 쪽
- 아청색 : 오리나무. 이것은 구리를 매염제로 사용하면 자주색도 냄
- 검은색 : 떡갈나무. 이것은 엽전을 매염제로 사용하면 갈색도 냄
- 기타 : 호도나무, 싸리나무, 상수리나무, 해당화, 금잠화, 피화나무, 물금꽃, 가래나무, 감과 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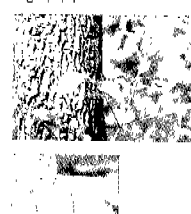
• 홍화(잇꽃) •



• 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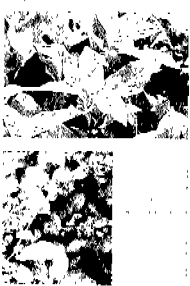
• 황벽나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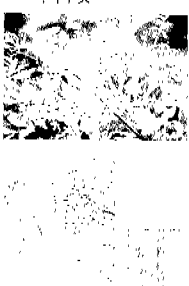
• 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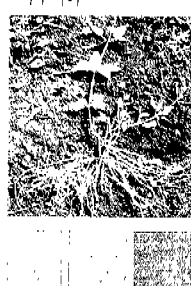
• 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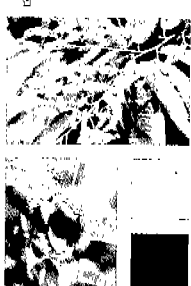
• 느티나무꽃 •



• 쪽두서니 •



• 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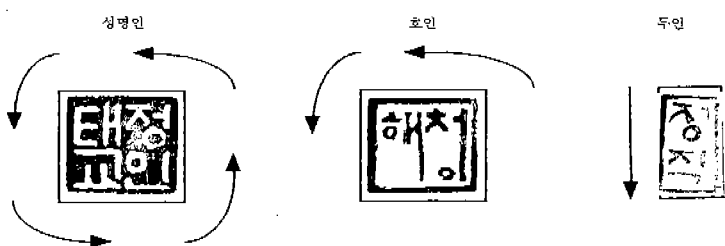
□ 서각(전각)

서각은 글씨를 부조형식으로 파낸 것을 말하며 이 때 사용된 글씨체가 전서체일 때 전각이라고 한다. 전각을 통하여 우리 선조들의 멋을 이해하고 한국화의 낙관이 지닌 독특한 미를 경험할 수 있다. 또 판화의 양각과 음각을 실기를 통하여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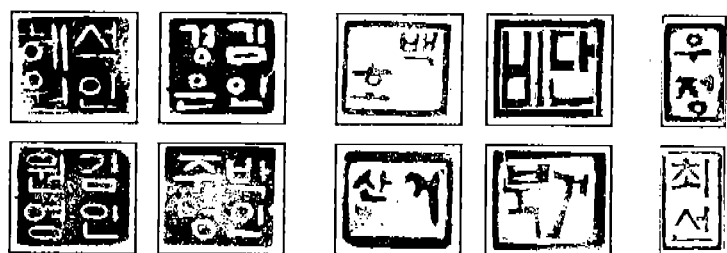
전각은 서장인과 수장인으로 분류되며 서화인은 다시 ‘성명인, 호인, 두인’으로 분류된다. 성명인은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 음각으로 처리하며, 하얀 글씨가 회계 되므로 백문이라고 부른다. 호인은 호를 새기는 것이고 두인은 좋은 구절을 새기는 것으로 이 두가지는 양각으로 처리하며 글씨가 붉게 찍히므로 주문이라고 한다. (그림 자료 참조)

전각을 제작할 때 주의할 점은 글씨가 너무 가늘어지거나 끝부분이 날카롭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호인과 두인은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글자의 배열 순서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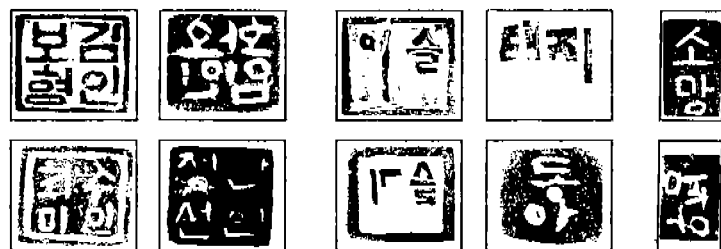
전각을 회화작품에 찍는 것을 낙관이라고 한다. 두인은 오른쪽 위에 찍고 성명인은 왼쪽 아래에 찍으며 호인은 성명인 바로 아래에 찍어준다. 자신의 회화 작품에 자신이 만든 전각을 찍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성취감을 갖게 하며 서구 미술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전래 미술 특유의 미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바르게 된 성명인, 호인, 두인 작품



성명인, 호인, 두인의 잘못된 예



성명인, 호인, 두인의 바른 배열

자료 : 아동미술실기교실. 1996.

우리가 펼치는 마당놀이

활동목표

우리는 삶의 애환을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멋과 낭만이 있다. 직접 화법이 아닌 춤과 소리와 악기를 동원한 예술로서 자신과 이웃의 한을 펼쳐 낸다. 신명나는 마당놀이를 통해 조상의 흥겨움과 설움을 새롭게 체험한다.

활동과정

활동 1 상모춤을 신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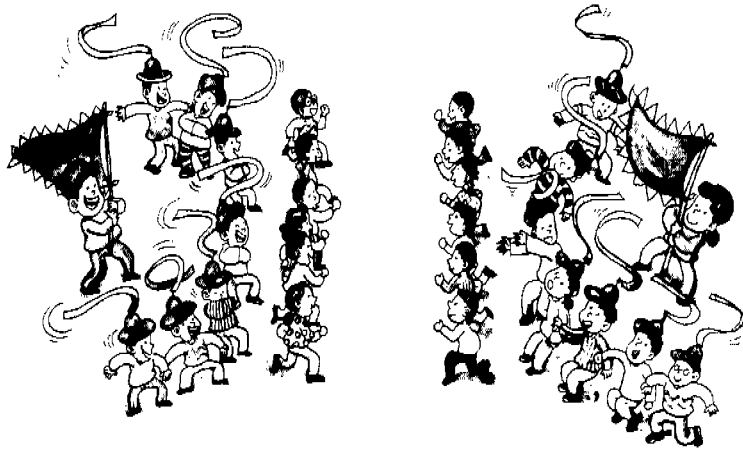
준비물 : 상모, 깃발, 소고, 소고채

활동내용

- ▶ 전체를 2개 모듬으로 편성한다
- ▶ 상모와 소고, 깃발을 나누어 준다. 상모가 없으면 모자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도 좋다.
- ▶ 전체적으로 상모돌리는 방법과 춤동작을 몇가지 배운다.
- ▶ 각 모듬구성원은 두 개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수비수가 되고, 다른 한 조는 공격수가 된다. 수비수는 신체를 이용하여 원을 만들고, 원 안에는 대장 1명이 그 모듬의 깃발을 들고 선다. 공격수는 자기원의 앞에 일렬로 선다. 상모돌리기를 잘하는 청소년을 수비수로 세울수록 유리하다.
- ▶ 넓은 공간 양쪽편에 각 모듬의 대열이 정비되면, 자기 모듬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5~10분 동안 소고를 힘차게 울리고, 위에서 배운 춤동작을 섞어 자유롭게 상모춤을 춘다.
- ▶ 모듬의 세를 보여주고, 충분히 흥이 나면 지도자의 신호에 맞추어 상대방의 기를 뺏는다. 공격수들은 상대편 수비수가 상모를 돌리고 있는 동안은 원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상모돌리기가 중단될 때만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수비수들은 상모를 잘 돌

려 대장이 기를 뺏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공격수와 수비수 모두 머리 외의 신체체를 이용할 수 없고 대장만 온몸을 사용할 수 있다.

- ▶ 지도자는 3~5분 간격으로 싸움시간과 대열정비시간을 번갈아 주면서 싸움의 속도와 강도를 지도한다.
- ▶ 먼저 기를 뺏은 모듬이 승리한다.
- ▶ 경기가 끝나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상모춤판을 벌인다.



활동 2 흥겹게 춤을

준비물: 없음

활동내용

- ▶ 동물춤, 병신춤과 같은 모방춤을 소개한다.
- ▶ 「아비농 다리」라는 프랑스 동요를 몇차례 배워 익힌다.
- ▶ 모든 참여청소년은 빙 둘러서서 큰 원을 만든다. 참여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2~3개의 원으로 나누어 만든다.
- ▶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돌다가 ‘허리굽혀 추고’의 노래 가사부분에 멈추어서 아가씨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다시 원을 돌다가 2절 후렴 다음에 ‘치마잡고 추고’의 노래 가사부분에서 다시 멈추어 아줌마들의 모습을 흉내낸다.
- ▶ 노래가 한차례 끝나면 지도자는 후렴 부분의 흉내낼 사람을 난

장이, 봉사, 놀부, 해골, 절름발이, 두꺼비, 개구리 등의 사람이 나 동물로 바꾸어 지정해 주고, 이에 맞추어 청소년들은 모방춤을 춘다.

- ▶ 프랑스의 노래 「아비뇽 다리」와 우리나라의 「모방춤」처럼 나라마다 유사한 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활동을 정리한다.



활동자료

□ 상모 만드는 방법

- ① 문종이를 붙이거나 짚을 이용하여 병거지를 만든다(위가 트이지 않는 모자로 대치해도 좋음).
- ② 20cm 정도를 나무를 깎아 꼭지(‘우늘’ 또는 ‘꼭두마리’라 함)를 만든다.
- ③ 여기에 실을 꼬아 고리를 만들고 구슬 10개 정도를 꿴다(구슬이 없으면 3cm가량의 종이를 가늘게 잘라 백백이 단다).
- ④ 이 끝에 굵은 실을 30cm 가량 길게 단다(이것을 ‘채’라 함).
- ⑤ 채 끝에는 넓이 손가락 셋, 길이 90cm의 백지를 단다(이것을 ‘상모지’라 함).
- ⑥ 상모지 끝의 가운데를 자르면 완성된다.

□ 상모놀이

농악에 속하는 춤의 한 부류로 소고잡이들이 추는 경우가 많다.

채상모놀이는 고개놀이를 위주로 한 것이며, 고개놀이는 종교적 주술이나 군사적인 신호 또는 성모의나 꽃, 새 등을 모방한 데서 나온 것이며, 그 움직임은 원과 나선형의 모양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차고 앉는 상’이라든가 자반뛰기와 같은 춤사위는 마치 용맹스러운 군마의 움직임이나 무술적 행위와 같이 그 움직임은 전투적이고 거친 것이 특징이다.

소고잡이들의 상모놀이에 나타난 춤동작에서 미적으로 나타난 선을 보면 나선이 수반된 원선이 지배적으로 많다. 이들 선은 방향과 굽기와 속도와 중량에 따라 각각 느낌이 다르게 나타난다.

채상모춤

나비상 : 상모를 돌리면서 앉는 동작으로 나비가 꽃에 앉는 것을 형용하는 것이다.

기러기춤 : 채상모를 돌리면서 양손을 옆으로 편 채로 한 발을 들고 돌아 기러기를 상징한다.

외상모, 양상모, 앞뒤로 젖히는 사위 : 상모를 한쪽이나 양쪽으로 돌리거나 앞뒤로 젖히는 동작에 대하여 옛날에는 군사적인 신호로 쓰인 것이 재현된 것이라는 설이 있다.

연풍대와 자반뛰기 : 연풍대는 격렬하게 돌아가는 것, 자반뛰기는 뛰어도는 동작이다.

열두발 상모놀이 : 열두발이나 되는 상모를 돌리면서 몸을 땅에 뉘어서 동체를 엮었다 뒤집는 동작을 반복하는데 이는 성회를 모의한 동작이다.

소고놀이춤

물푸기 : 소고나 소고채를 가지고 마치 물을 푸는 형용을 하는 춤사위이다.

농식놀이 : 영동·영남농악에서 볼 수 있는 춤사위로서 여러가지 농사짓는 행동을 상징한다.

□ 아비농의 다리

아 비 농 의 다 리

동작과 함께 노래를 즐긴다.

프랑스 노래

사 람 들 만 나 면 즐 거 움 게 춤 을 추 네

춤 추 는 다 리 는 아 비 농 이 둘 다 리 *Fine*

1. 아 가 씨 들 춤 은 허 리 굽 혀 추 고 *D.C.*
 2. 아 줌 마 들 춤 은 치 마 잡 고 추 고
 3. 군 인 들 의 춤 은 차 렷 하 고 추 고
 4. 아 이 들 의 춤 은 왔 다 갔 다 추 고

□ 모방춤

모방춤은 인류 최초의 춤이다. 종교가 의식화되어 가는 선사시대의 춤은 모두 사물을 비롯하여 동물류나 조류 등을 흉내내는 춤이었으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방춤에는 주술성이 내포되어 있다. 농민들은 비를 오게 하기 위해 비를 흉내내보고 땅을 밟는 춤을 추고, 신을 가장하여 신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방춤은 우리나라 춤의 낙천적이고 해학적인 심성을 풍자적 동작으로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민속춤에서 모방춤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 병신춤이나 성모의 춤, 짐승의 움직임을 모방한 춤이 있다.

병신춤

뼈다구춤, 난쟁이춤, 증풍쟁이춤, 배불뚝이춤, 꼬부랑할미춤, 땔땔이춤, 문둥이춤, 꼬사춤, 히줄대기춤, 봉사춤, 절름발이춤, 해골병신춤, 얼굴병신춤, 곰배팔이굽사춤, 오리발굽사춤, 땡장다리춤, 안짱다리춤

성모의 춤

요동춤, 용두춤

동물춤

개구리춤, 두꺼비춤, 학춤, 곰춤, 오리춤

자료 : 학생야영수련프로그램. 1992.

한국의 민속춤. 1993.

전통과 미래 L O

함께 만드는 미래의 벽화
우리가락을 세계가락으로
내 손으로 만든 명품
우리춤으로 꾸미는 가상미래

함께 만드는 미래의 벽화

활동목표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세계를 상상해 보고 미래의 도시, 농촌, 학교, 교실, 방, 기타 공간을 전통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가 접목하는 공간으로 꾸며보도록 함으로써 전통예술의 뿌리와 정신을 미래에까지 이어가도록 한다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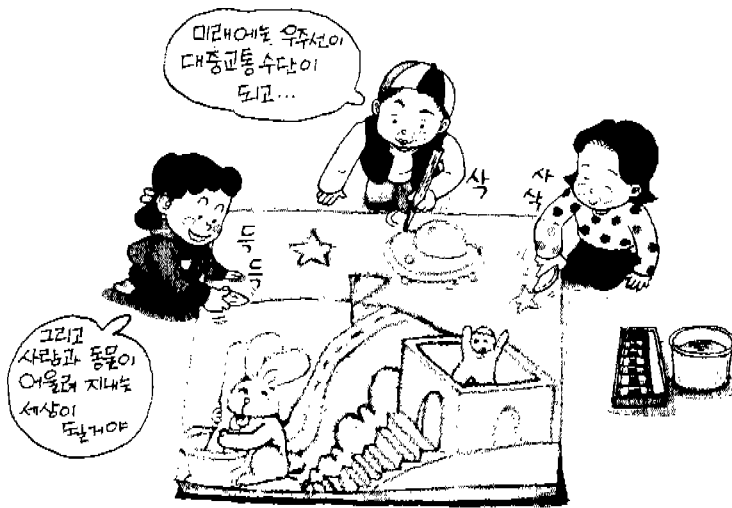
활동 1 심장생으로 미래를 그려요

준비물 : 1m×1m 가량의 석고판, 4B연필, 뾰족한 돌, 나무, 조각도, 물감, 붓, 사진기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미래의 벽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둠별로 소제목과 그릴 내용을 정한다. 미래의 학교, 자기방, 화장실, 부엌, 도서관, 지하철, 병원 등의 벽을 소재로 택할 수 있다.
- ▶ 모둠별로 벽을 대신하여 준비된 사각형 석고판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다.
- ▶ 돌, 나무, 조각도, 손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밑그림대로 모양을 새긴다.
- ▶ 밑그림이 모두 새겨지면 물감으로 색을 칠한다.
- ▶ 벽화가 완성되면 모듬의 대표가 나와 전체 앞에서 벽화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 ▶ 모듬별로 그린 벽화 중 미래의 우리 생활과 환경을 전통그림의 느낌대로 가장 잘 표현한 벽화를 선정하여 사진을 찍고, 참가청소년 전원에게 줄 수 있도록 기념엽서로 만든다.
- ▶ 전체 모여 한국화의 특징과 전통미술이 미래에 투영되어질 모습

을 예측하는 토론을 하고 활동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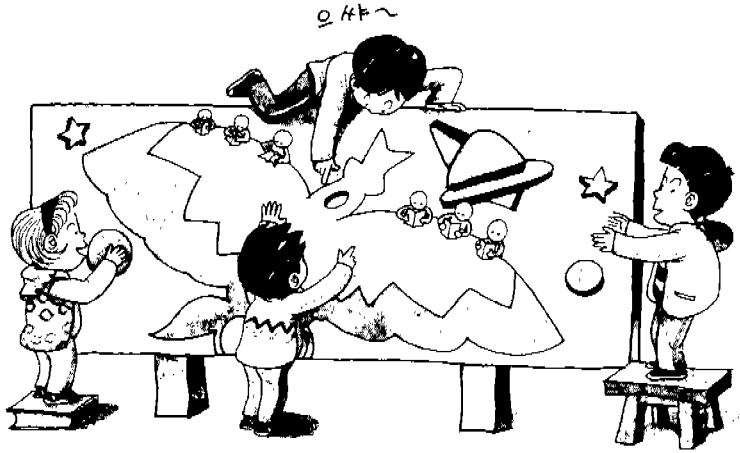


활동 2 평면을 입체로

준비물 : 모조지, 전통문양을 소개하는 자료, 먹, 물감, 붓, 베틀, 신문지, 나무, 입체 도형(블럭), 스티로폼

활동내용

- ▶ 3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다함께 벽에 종이를 붙인 후(건물 벽이 없으면 판자를 이용하여 벽을 만든다) 적당한 크기로 모둠별 공간을 나눈다.
- ▶ ‘가상의 교실’이라는 주제를 준 후, 준비된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모둠별로 그림을 그린다.
- ▶ 종이, 나무, 입체도형, 스티로폼 등을 이용하여 벽화의 내용을 입체로 만든다.
- ▶ 입체로 된 벽면을 먹과 물감을 혼합하여 꾸며본다.
- ▶ 벽화가 완성되면 감상하는시간을 갖고, 벽화에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와 전통문양의 응용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 ▶ 미래사회에서 벽화가 갖는 미술적 위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활동을 마친다.



활동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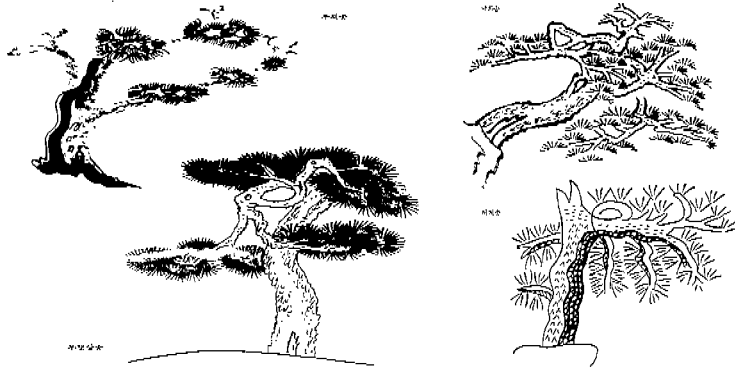
□ 벽화

- 건물이나 무덤의 벽에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것은 후기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벽화에 사용되는 물감은 광물질이 주로 사용되며, 식물의 즙이나 동물의 배설물, 인조물감 등도 쓰이고 있다. 색채는 대개 백색, 흑색, 적색, 황색, 청색, 녹색 등이 주류를 이루며 그 혼합색도 쓰인다.
- 우리나라의 벽화는 건물벽화와 고분벽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모두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건물벽화에서는 사찰벽화가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고 고분벽화는 고구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그 역맥이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진다.
- 고구려벽화의 특징
 - 중국미술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벽화주제의 배치나 내용면에서 개성있는 독창성을 보여준다(예 : 무용도, 수렵도).
 - 종교적인 가호를 받기 위하여 또는 정토적 성격을 띠기 위하여 상징적인 무늬로 벽면을 채우기도 한다(예 : 연화문, 사신도).
 - 회화 자체가 가지는 순수미술로서의 성격과 효과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통구사신총의 경우는 고분벽화라기보다 궁전벽화라고 해도 좋을 만한 현세적인 미와 생명감이 넘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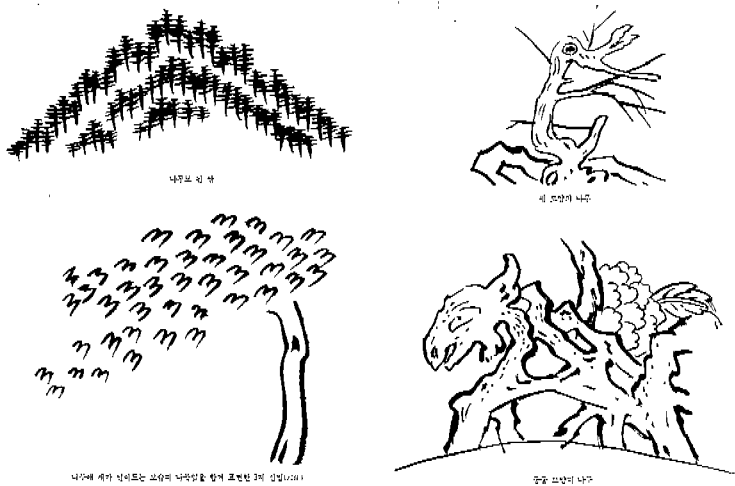
□ 십장생그리기

십장생도는 장수 상징물을 그린 그림으로 장생물의 숫자가 유동적이다. 십장생은 해(日), 구름(雲), 물(水), 바위(石), 소나무(松), 천도(天桃), 대나무(竹), 두루미(鶴), 사슴, 거북(龜), 불로초(芝)이며, 뒷배경으로 그려지는 푸른 산은 젊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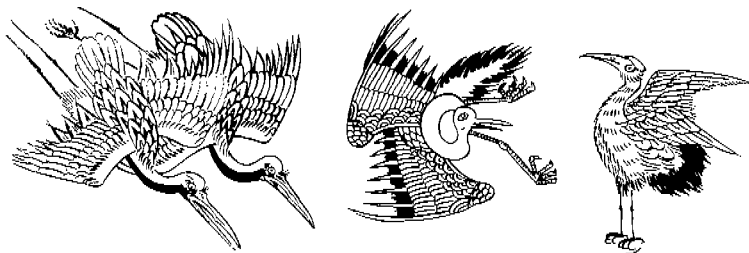
소나무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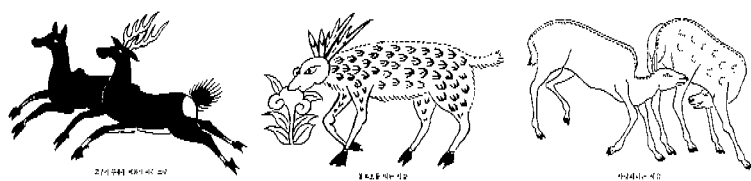
산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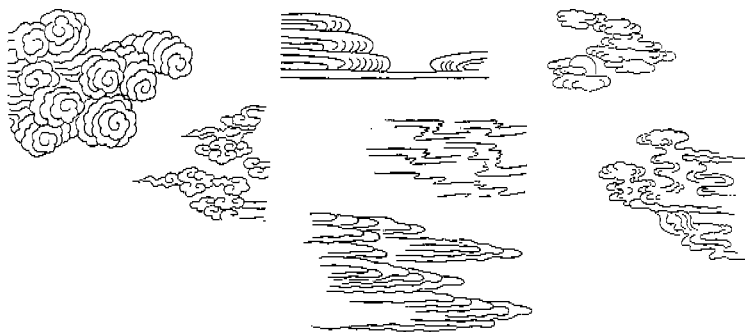
학 그리기



사슴 그리기



구름 그리기



불로초 그리기



심장생도 그리는 순서

- ① 한지에 먹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이를 원본이라 하는데 풀을 발라 한지로 배접을 한다.
- ② 배접한 그림 위에 화면 전체를 가볍게 칠한다(착색 1).
- ③ 한 번에 칠한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겹칠로 메울 수 있다(착색 2).
- ④ 작은 붓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허전한 곳을 찾아 끝이 몽당한 붓에 먹을 묻혀서 태점을 찍어 준다.

자료 :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민화그리기. 1995.

우리가락을 세계가락으로

활동목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격렬한 리듬을 가진 사물놀이를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리듬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가능성의 하나로 서양음악과 우리음악을 조화시켜보도록 한다.

활동과정

활동 1 가락을 찾아라

준비물 : 비디오기기, 녹음기, 녹음테이프, 영화 등이 수록된 비디오테이프, 사물(팽과리, 장고, 북, 징)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참여청소년 전체가 모여 외국의 유행하는 춤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에서 소리를 없앤 후 시청한다.
- ▶ 모둠별로 전체가 함께 본 비디오테이프 내용을 다시 보면서 우리 사물을 이용하여 어울리는 음악을 구성하여 녹음한다.
- ▶ 전체가 모여서 처음에 본 비디오테이프의 소리를 재생하여 시청한다.
- ▶ 모둠별로 원래의 음악과 모듬이 만든 우리 가락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발표한다.
- ▶ 전체 모여 우리가락이 세계속의 가락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보완하고 재창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
- ▶ 모듬별로 녹음된 테이프를 모아 하나의 테이프에 수록한 후, 참여 청소년 모두에게 기념으로 주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활동 2 우리의 멋가락은?

준비물 : 녹음기, 우리악기

활동내용

- ▶ 3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모둠별로 우리의 가락 중 세계적인 음악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여 녹음한다(악기의 소리나 가락의 곡조를 녹음하거나 노래의 제목 또는 리듬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
- ▶ 모둠별로 종이에 선정한 가락 또는 악기가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는다.
- ▶ 선정한 가락 또는 악기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서양악기 또는 음울을 선택한 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 ▶ 모둠별로 주제를 하나 선정하여 우리의 전통악기 또는 우리 정서를 풀어낼 수 있는 자연의 소리 등을 담아 곡을 만든다.
- ▶ 전체 모여 우리 리듬의 멋과 맛에 대해 토론하고 세계의 리듬이 되기 위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다.
- ▶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전통 음악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활동자료

□ 서양리듬과 우리리듬의 차이

서양음악이 7음계를 사용하는데 비해 국악은 5음계를 사용한다. 우리나라 음악은 서양음악처럼 화성적 진행이 발전되지 않은 선율을 바탕으로 한 음악이다.

우리 음악은 음 하나 하나에 미세한 변화를 주어 음을 흘리거나 떠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고정된 음으로 연주하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은 제맛이 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음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피아노를 포함한 다른 서양 악기와의 협연을 통해 우리 음악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창작해야 할 것이다.

피아노 반주와 장구 장단을 조화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로 우리 음악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 즉, 첫 박자에 액센트를 주고 요성(떠는 소리)은 트릴 주법으로, 퇴성(흘러 떨어지는 소리)은 그 음에서 그 음으로 이어서 친다.

자료 : 어린이 국악교육의 실제. 1994.

내 손으로 만든 명품

활동목표

모든 예술작품이 명품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명품은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예술가가 갖는 명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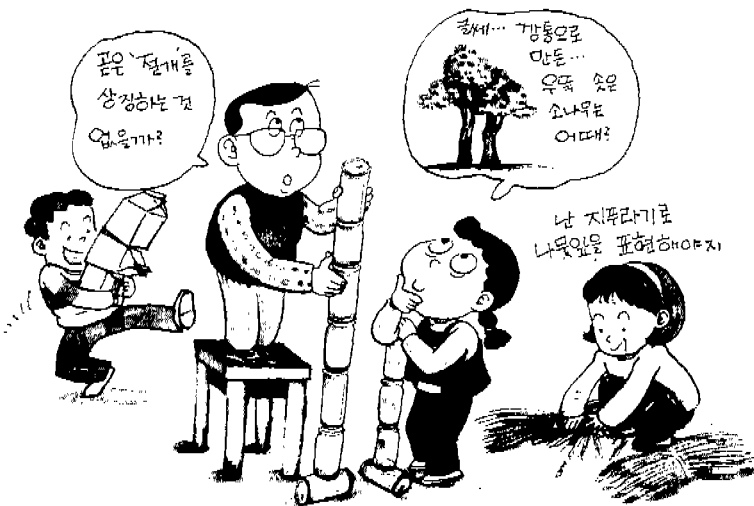
활동과정

활동 1 영원한 가치

준비물 : 폐생활용품, 공작도구, 나무, 흙 등

활동내용

- ▶ 3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모듬별로 하나의 생활신조 또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단어를 선택한 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통예술과 관련된 작품을 생



각한다(만약 ‘절개’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면 은장도로 상징화하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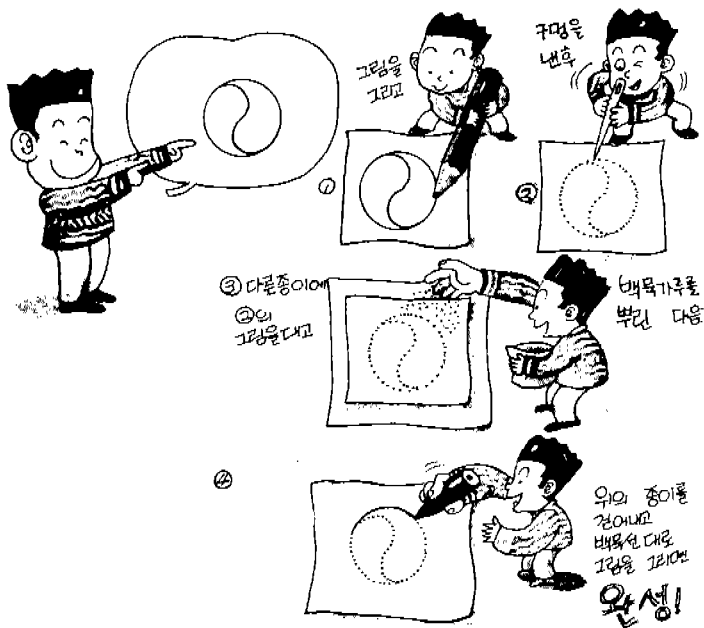
- ▶ 나무와 찰흙 또는 폐품 등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든다.
- ▶ 모둠별로 대표가 나와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한다.
- ▶ 모둠별로 완성된 작품을 품평하여 선정한 단어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상을 준다.
- ▶ 미래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토론한 후 활동을 마친다.

활동 2 내가 만든 로고

준비물 : 종이, 바늘, 색깔있는 백묵, 전통문양 자료

활동내용

- ▶ 전통문양을 소개 한다.
- ▶ 모든 참여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미래의 자기 회사로고, 가게간판 또는 자기가 만들어 낸 상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표나 무늬를



생각하게 한다. 이 때 창작하는 로고, 간판 또는 상표는 전통문양의 모양을 응용하거나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 상징물을 만든다(문양뜨는 법 참조).
- ▶ 완성되면 각 모듬별로 자기가 만든 로고의 의미와 만든 목적을 발표하고, 가장 잘된 것을 모듬 대표작으로 선정한다.
- ▶ 모듬 대표작으로 선정된 것을 전체 앞에서 발표하고, 창의적이면서 동시에 전통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것을 뽑아 상을 준다.

활동 3 2010년의 골동품

준비물 : 찰흙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모듬별로 2010년에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 우리의 물건이 어떤 것인지 선정한다.
- ▶ 선정된 물건을 찰흙을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할지를 구상한다.
- ▶ 모듬별로 흙을 빚어 작품을 만든다.
- ▶ 모듬에서 만든 작품을 모아서 전시한다.



활동자료

□ 명품(골동품)의 개념

오래되고 유서깊은 서화(書畵)와 각종 기물(器物)로서 회소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애완되는 것으로 골동 또는 고완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고동(古董)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고미술품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인다.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는 북송의 문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어 명·청 시대에 걸쳐 크게 유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화의 경우 종래의 궁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집풍조가 고려 중기부터 일부 문인들 사이에서 대두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특히 조선후기의 북학파는 골동품을 단순히 사치품이 아닌 선인들의 고아한 격조와 운치가 깃든 고완품으로서 옛것을 좋아하는 취미를 길러주고 풍류와 정취있는 생활을 느끼게 하는 매체로 여기고, 단순한 수집보다는 그 진수를 향유할 수 있는 안목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정확한 감식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였다.

□ 문양 뜨는 법

- ① 설계한다.
- ② 설계용 종이도면 위에 그림을 그린다.
- ③ 그림의 선을 따라 바늘로 구멍을 낸다.
- ④ 표지를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설계용 종이를 놓은 후 바늘구멍 위에 색깔 있는 백묵을 뿌린다.
- ⑤ 설계용 종이를 들면 표지에 바늘구멍으로 빠져나온 색깔 백묵이 창작한 로고 모양대로 나타난다.

자료 :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우리 춤으로 꾸미는 가상미래

활동목표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재현을 뜻하지 않는다. 전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의 관점에서 전통의 모습을 상상해 봄으로써 전통적 가치에 대한 재해석과 비판정신을 기른다. 미래를 이어가는 시간과 공간이 연결된 축이다.

활동과정

활동 1 전통미래

준비물: 연기에 필요한 도구

활동내용

- ▶ 10명을 한 모듬으로 구성한다.
- ▶ 모듬별로 100년 후의 미래사회를 상징하는 주제를 택해 10분내외로 공연할 수 있는 각본을 만든다.
- ▶ 각본을 토대로 모듬 구성원이 연출과 연기 그리고 제작진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전통음악과 무용을 담은 마당극을 구성하여 연습한다.



- ▶ 모둠별로 차례로 나와 전체 앞에서 ‘미래전통예술’ 공연을 한다.
- ▶ 공연이 모두 끝나면 전체 모여 전통예술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한 후 활동을 마무리 한다.

활동 2 세계 속의 전통

준비물 : 비디오재생기, 녹음기, 녹음테이프, 영화 등이 수록된 비디오 테이프, 사물

활동내용

- ▶ 5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 각 모둠을 전통음악·미술·무용·극 등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영역을 정한다.
- ▶ 모둠별로 정해진 영역의 미래 발전 모습을 예측하여 종이에 기술하고 전통예술을 세계화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간단한 극본으로 구성한다.
- ▶ 모듬의 대표가 나와 담당한 분야의 미래 모습을 발표하고, 모듬 구성원 모두 무언극으로 전통예술 세계화의 문제점을 표현한다.
- ▶ 전체가 모여 ‘전통예술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활동을 마친다.



활동자료

□ 전통예술과 미래

‘예술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다. 이런 인식과 가치가 계속되어진다면, 예술의 미래는 밝다. 전통예술 또한 과거의 예술과 전통으로 이어온 현대의 예술이 미래의 시각으로 재정립될 것이다.

그러나 예술이 인간 전체의 삶의 양식에서 삶의 일부분만 점목되어지는 하위문화영역으로 이전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예술의 미래는 본질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은 새로운 세계의 형태로 변화가 예견된다.

중점논의사항

- 미래에 가장 주목받을 것 같은 예술의 장르는 무엇인가?
- 전통예술에서 미래에까지 계승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 전통예술의 각 장르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II. 응용과정

삶과 함께하는 전통예술캠프
전통예술 창작마당
과거·현재·미래의 잔치마당

상과 함께하는 전통예술캠프

□ 활동개요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의 캠프를 통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안목과 애정을 기르도록 하는 종합적인 활동들이다.

□ 활동일정

얼마나 : 2박 3일

어디서 : 숙박 또는 야영이 가능한 수련시설

누구와 : 100명 내외

□ 활동일정표

시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오전 6:00			
7:00		기상 및 세면	기상 및 세면
8: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10:00		생활 속의 옛 멋을	그림수필그리기
11:00		찾아서	
12:00	숙소도착 및 정리		정리의 시간
오후 1: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2:00			
3:00	만남의 시간	그곳에 우리의 멋이	헤어짐의 시간
4:00			
5:00	한소절 한걸음부터	우리 힘으로	
6:00			
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8:00			
9:00	선을따라 빚어지는	우리전통 한마당	
10:00	시간의 예술품		
11:00	취침	취침	

□ 활동내용

활동 1 한소절 한걸음부터

장구실습을 통해 우리 음의 기본 가락 및 장단을 익히는 활동

▶ 준비물: 장구, 녹음기

▶ 활동내용

- 참여 청소년을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눈다.
- 장구의 부호와 채 쥐는 법을 설명한다.
- 채편치기, 북편치기, 양손치기, 장단치기를 해본다.
- 가락에 따라 장구를 쳐본다.
- 세마치, 굿거리 장단에 맞는 민요를 한곡씩 연습해 본다.

- 모듬별로 연습한 곡을 연주한다. 연주할 때는 녹음기로 녹음해 두고 연주가 끝난 후에 들어본다.

▶ 도움자료

가락에 따라 장구치기

전통음악에는 여러 가지 장단이 있다. 장단에는 그 구분에 따라 강약, 리듬 등이 따르며, 음악의 긴장감이 더해지면 장구의 잔가락은 떨어져 치고, 가락의 여백에는 장구장단을 더 넣어 가락을 꾸며주기도 한다.

활동 2 선율따라 빛어지는 시간의 예술품

전통음악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찰흙을 이용한 토우를 만들어보는 활동

▶ 준비물: 찰흙, 찰흙 빚는 칼, 항아리, 전통음악 테이프

▶ 활동내용

- 5명 내외로 한 모듬을 구성한다.
- 각 모듬마다 항아리 한 개와 찰흙을 나누어 준다.
- 각 모듬구성원은 항아리를 꾸미거나, 항아리와 조화될 수 있는 토우를 만들려면 어떤 형상의 토우를 만들어야 할 지 의논한다.
- 만들어야 할 토우 모양이 결정되면 각 모듬구성원은 자기 토우를 만든다. 참여 청소년들이 작품을 만들 때, 차분한 전통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어준다.
- 토우가 완성되면 자기가 만든 완성품으로 자기 모듬의 항아리를 아름답게 꾸민다.
- 가장 잘한 모듬을 뽑아 상을 준다.

▶ 도움자료

토우란

토우란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말한다. 토우는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물이나 생활용구, 집 등 모든 것을 그 모습대로 본떠 만든다. 고대의 토우는 장난감, 주술용의 우상, 무덤에 넣기

위한 것 등이 있다.

토우 만드는 과정

- ① 반죽하기 : 찰흙을 반죽하여 뭉쳤을 때 손가락에 달라붙으면 물기가 많은 것이고, 뭉쳐서 납작하게 만들었을 때 쪼개지거나 금이 가면 물기가 적은 것이다. 길게 늘여서 땀었을 때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반죽이 적당하다.
- ② 조형하기 : 먼저 큰 덩어리로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만들고, 점차 이를 발전시켜 자세한 부분까지 손댄다. 찰흙과 찰흙을 붙일 때는 양쪽에 붙을 부분이 잘 밀착되도록 주물러 붙이기도 하고, 찰흙에 물기를 주어 부드럽게 하여 붙이기도 한다. 찰흙만으로 금이 가고 떨어지거나 내려앉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뼈대를 넣어 견고하게 만든다.
- ③ 말리기 : 그늘에서 잘 말린다.



활동 3 생활 속의 옛 멋을 찾아서

모듬별로 주변의 자연 속에 있는 산성이나 지역사회를 탐사하면서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문화예술의 자취를 찾아보고, 전통예술품을 보는 안목을 길러 주는 활동

▶ 준비물 : 필기도구, 스케치북, 사진기, 비디오기기

▶ 활동내용

- 답사할 지역을 선정한다.
- 5명 내외로 한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별 준비물을 확인한다.
이 때 한 모둠만은 사진기와 함께 비디오를 갖도록 한다.
- 각 모둠마다 답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분야를 정해준다.
- 각 모둠구성원은 자기모둠의 조사분야에 해당하는 내용 중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스케치북에 그리거나 사진기에 담는다. 그것에서 받은 특별한 느낌이 있다면 글로 적어두어도 좋다.

▶ 도움자료

답사지역

산성, 절, 민속관·박물관 등 유물이 있는 곳, 고궁, 향교 등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 또는 전통의 숨결을 담은 곳

조사 분야 및 내용

건축물의 경우 : 기와의 모양, 기둥의 생김새, 건축물 구석구석에 새겨진 문양, 건물기단·층계 모양, 전체적인 조형, 중심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

고궁의 경우 : 정원을 구성하는 선, 건물과 나무가 자리잡은 형태, 정자

민속관·박물관의 경우 : 조각품, 도자기, 토우, 의·식·주 생활용품, 무기, 화폐, 농기구 등의 재료와 선·조형·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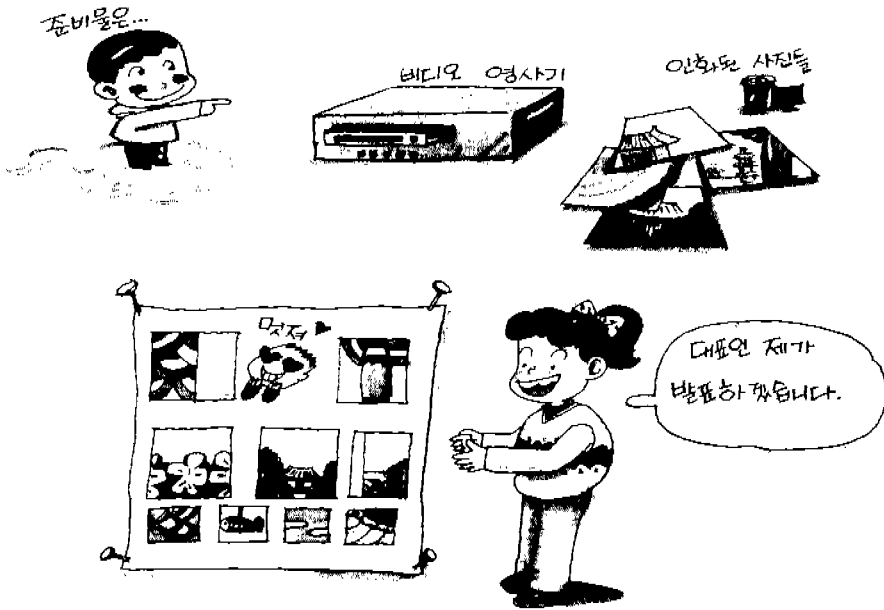
활동 4 그 곳에 우리 멋이

오전활동인 ‘생활 속의 멋을 찾아서’의 연장이 되는 활동으로 사진, 그림, 글로 담아본 옛 멋을 모둠별로 편집하여 발표하는 활동

▶ 준비물 : 비디오영사기 1대, 전지, 사전활동에서 찍은 인화된 사진

▶ 활동내용

- 사전활동인 ‘생활속의 멋을 찾아서’의 활동결과물인 인화된 사진, 그림, 글을 준비한다.
- 각 모듬은 이 결과물들을 준비된 전지에 의미있게 배열하여 편집한다.
- 편집이 끝나면 각 모듬별로 대표가 나와 그 내용을 특별히 사진으로 담은 이유와 무엇이 아름답게 느껴졌는지를 발표한다.
- 모듬별 발표가 끝나면 모든 모듬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작품집으로 구성한다.



활동 5 우리 힘으로

모듬별로 각기 다른 전통음악을 정해주면 청소년들이 첫째날 ‘한소절 한걸음부터’ 활동에서 배운 기본 가락 및 춤사위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춤동작을 혼합하여 춤극으로 만들어보는 활동

- ▶ 준비물 : 다양한 유형의 전통음악 테이프 또는 CD, 춤추기 편한 복장

▶ 활동내용

- 10명 내외로 한 모듬을 구성하고 각 모듬마다 전통음악을 한 곡씩 정해준다.
- 각 모듬구성원끼리 의견을 모아 자기모듬의 극제목과 줄거리를 만든다.
- 그 줄거리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역을 정한다.
- 전 시간에 배운 춤사위와 자신들이 좋아하는 현대의 춤동작을 혼합하여 지도자가 정해준 음악에 맞추어 연습한다.
- 춤으로 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면 적절히 넣도록 한다.

활동 6 우리전통 한마당

‘우리 힘으로’ 활동 시간에 만든 춤극을 야외 또는 실내 공연장에서 모듬별로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

▶ 준비물 : 다양한 유형의 전통음악 테이프 또는 CD, 춤추기 편한 복장

▶ 활동내용

- 모든 참여 청소년들이 반원으로 둘러앉는 대형을 만든다.
- 한모듬씩 돌아가며 ‘우리 힘으로’ 시간에 만든 춤극을 발표한다.
발표하기 전에 모듬대표가 나와 춤극의 주제와 그 줄거리를 간략히 설명한다.
- 모든 모듬의 발표가 끝나면 춤극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 전통춤에 대해 느낀 점, 가장 잘된 춤극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춤판으로 활동을 끝낸다.



활동 7 그림수필 그리기

기본과정의 단위활동 참조

전통예술창작마당

□ 활동개요

청소년들이 생활권시설에서 8주 8회에 걸쳐 이해, 실습, 체험을 통하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도록 하는 체계적인 활동들이다.

□ 활동일정

얼마나 : 6주 과정(1주에 1회씩 6차시)

어디서 : 생활권 수련시설

누구와 : 50명 내외

□ 활동일정표

차시	활 동 명	내 용
1주	새롭게 느끼는 아름다움	한국의 미를 주제로 한 슬라이드 감상을 통해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활동
2주	같은점과 다른점 찾기	우리 회화와 서양화, 우리 회화와 사진을 비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통회화의 맛을 느끼고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
3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전래동요는 회화에락을 포함한 여러 감정의 공통성으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유사한 곡이 생겨난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처럼 전국 어느곳에서나 불려졌던 노래를 집단 놀이화하여 감성과 상상력을 높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토록 하는 활동
4주	천년 후의 인간모습	우리의 탈은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각 시대의 인물들을 계층, 남녀, 연령별로 두루 보여주고 있다. 직업에 따른 미래 사회의 인간 모습을 상상하여 탈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을 미래에까지 잇도록 하는 활동
5주	시, 음악 그리고 풍류	문학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여러 장르가 공존했던 전통예술세계를 체험하는 활동
6주	환경과 인간과 예술	민화의 한 종류인 초충도를 밖에 나가 직접 그려보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인간과 예술 작품과의 관련성을 되새겨보는 활동

□ 활동내용

활동 1 새롭게 느끼는 아름다움

- ▶ 준비물 : 비디오기, 한국의 미를 담은 비디오 테잎
- ▶ 활동내용

- 전체 참여자를 5개 모둠으로 나눈다
- 모둠별로 전통 회화, 음악, 공예, 건축, 춤의 5개 분야에 관한 비디오를 감상한다
- 감상이 끝나면 모둠별로 ‘한국의 미’로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 모둠별 활동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모여 5개 부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국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장르에 따라 특별한 미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 도움자료

KBS영상사업단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디오(60분짜리임)

- 전통회화에 관한 것 : 「단청」 「겸재 정선」
- 음악에 관한 것 : 「북소리」 「황병기의 가야금부」 「남도베를가」 「거문고」 「정선아리랑」 「장구」 「범패」 「평창아리랑」 「산촌시가」 「서우젓소리」 「농부의 노래」 「홍보가」 「늑도지」 「사비의 숨결, 산유화가」 「강시부의 대금별곡」 「보성소리」 「북」 「아쟁」 「제주민요」 「애원의 서편제(임방울의 판소리)」 「금강기행 소리를 따라서」 「가거도 멀치잡이 노래」 「숨쉬는 땅 농부의 노래」
- 공예에 관한 것 : 「농기구」 「모시길쌈」 「부채」 「자수」 「소반」 「목각」 「목가구」 「나전칠기」 「옹기」 「유기」 「삼베」 「잃어버린 색을 찾아서」 「풀문화」 「한지」 「등」 「분청사기」 「광양 장도」 「토우」 「보성용문석」 「황칠을 찾아서」 「한복」 「연」 「창호」 「탈」 「보자기」
- 건축에 관한 것 : 「옛집」 「살림집 문」 「기와」 「송광사」 「옛다리」 「정자」 「담장」 「소쇄원」 「신라의 정원」
- 춤 또는 극에 관한 것 : 「안동하회탈」 「서산박침지」 「사물놀이」 「한국춤 선과 힘의 예술」

활동 2 같은점과 다른점 찾기

동양과 서양의 회화를 문화비교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봄으로써 전통

회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

▶ 준비물 : 고려시대의 불화와 중세 유럽의 성화, 조선시대의 인물화와 인물사진, 정선의 금강전도와 금강산 사진

▶ 활동내용

- 5명 내외로 한 모둠을 구성한다.
- 고려시대의 불화와 중세 유럽의 성화를 감상한다.
- 조선시대의 인물화와 인물사진을 감상한다.
- 정선의 금강전도와 금강산 사진, 또는 우리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를 감상한다.
- 기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으면 감상한다.
- 감상이 끝나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서양화와 구별되는 동양화의 맛은 어떠한가
 - 우리 회화는 실제의 인물 모습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담고 있는가
 - 산수화의 멋은 어디에 있는가
 - 풍경화와 산수화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도움자료

고려시대의 불화

불화란 불교의 종교적인 이념을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불교회화’를 줄여서 부르는 용어로, 좁은 의미로는 절의 법당 같은 곳에 모셔놓고 예배하기 위한 그림을 일컬으며, 넓은 의미로는 불교도나 이교도를 교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절을 장엄하게 하기 위한 단청 등 불교적인 목적을 지닌 일체의 그림을 일컫는다.

불화의 용도는 대체로 사원을 장식하는 장엄용(청장이나 기둥·벽면에 그린 단청과 벽화), 일반대중에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해 주기 위한 교화용, 의식 같은 때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용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용도는 엄격히 분리되어 쓰이지 보다는 그 용도를 서로 겸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고려 후기의 작품이 대부분으로 이 시기의 불

화는 권문세족이 대표하는 귀족적 분위기가 불화에 잘 드러나고 있다. 화려하고 고귀한 금선과 밝고 찬란한 색채를 주로 해서 그린 이들 불화는 고귀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구사하고 있다.



수월관음도, 서구방 그림. 1323년. 비단에 채색. 165.5 × 101.5cm.
일본 개인 소장.

조선시대의 인물화

조선시대는 국초부터 유교를 실천적 지도이념으로 표방하였으며, 보본사상(報本思想)에 근거를 둔 가묘(家廟) 및 영당(影堂)의 설립을 국책적으로 권장하여, 이러한 장소에 봉안될 초상화의 수요를 자극하였다. 따라서 활발한 초상화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담당하는 초상화사(肖像畫師)들의 기량이 높았으므로 조선시대는 초상화 연구에 있어 가장 중시되는 시기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

전기: 전기 초상화의 주도적 기능은 선(線)으로 안면을 열은 토황

빛 살색을 주조로 시채한 후, 안면의 구성요소, 즉 이목구비를 발췌 하듯 안색보다 조금 짙은 살빛 구록세션으로 그려나가는 방법을 썼 으며, 의습처리(衣褶處理) 역시 외곽 및 주름을 상징적인 몇 개의 선으로 요약하여 그어 나갔다. 따라서 화폭은 전체적으로 생신하고 간결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예 : 장말손상, 오자치상, 손소창상, 김시습상 등).

중기 : 중기의 화법은 안면은 옅은 담홍색의 살빛을 주조로 하고 전 기의 선 위주의 화법을 이어가면서 그 위에 새로운 표현기법을 구 사하고 있다. 즉, 안면은 골을 중심으로 한 높고 낮은 형세를 표현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의습처리에 있어서는 아직 선이 주도적 기능을 하고 있다(예 : 이덕형상, 이항복상 등).

후기 : 윤염법(暈染法)을 사용하였다. 안면을 하나의 커다란 마당으 로 보고 안면의 움푹한 부분에 붓질을 거듭함으로써 어두운 느낌을 주고, 도드라진 부분은 붓질이 덜 가게 함으로써 밝은 느낌을 부여 하였다. 따라서 안면의 주조색은 초중기에 비하여 짙은 갈색계가 되고 역시 안면이 높고 낮은 형세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인간의 피부에 있는 보편적 결의 방향을 따라 붓질을 진행하고 있다.



윤두서, 자화상. 17세기후반.
지본담채. 개인소장.



강세황, 자필본영정. 1782년.
견본담채. 국립중앙박물관.

정선의 금강전도

금강내산을 하나의 큰 원형 구도로 묶어서 그리는데, 이는 기법상 천하도(天下圖)라는 지도제작기법에 근거하며, 금강내산을 한 떨기 연꽃 또는 한 묶음의 보석다발로 보는 종래의 자연묘사사에서 조형적 원리를 따오는 기발한 착상이다. 우선 원형을 대강 오른쪽의 골산(금강내산의 화강암바위로 된 뾰족뾰족한 모습)과 왼쪽의 토산(금강내산의 수림이 자라는 둥근 뿔부리)으로 구분하며, 골산은 예리한 윤곽선으로, 토산은 그 독특한 침엽수림과 미점(米點)으로 묘사한다. 그 다음 이 원형 외곽을 짙은 청색으로 둘러 여타 공간을 생략함으로써 산 자체만을 돋보이게 한다. 골짜기마다 흐르는 물은 원의 중심이 되는 만폭동에 일단 모이게 하여 구도상의 중심을 이룬 다음, 화면의 앞쪽으로 흘러 장안사비홍교(長安寺飛虹橋)를 지난다.

이 그림은 실제의 자연을 새로 해석하여 형화한 좋은 예이며, 오른편 위쪽에 쓴 제시(題詩)의 내용과 형태가 일치한다.



금강전도. 종이에 채색, 1734년작, 국보 제217호, 호암미술관 소장

활동 3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 준비물 : 없음

▶ 활동내용

- 전체적으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노래를 2~3차례 부른다.
- 전체를 두 개의 모듬으로 나누어 한 모듬은 ‘술래’가 되고, 다른 한 모듬은 ‘여우가족’이 된다.
- ‘여우가족’이 된 모듬은 한 곳에 모여 앉고, 술래가 된 모듬은 상대 모듬과 10~20m 간격을 유지하면서 일렬횡대로 선다.
- 먼저 술래모듬은 앞서 배운 노래를 한 행씩 한목소리로 부르면서 여우가족 모듬 쪽으로 전진하다가 한 행의 노래가 끝나면 멈춰선다. 다음에는 여우가족 모듬이 노래에 답한다.
- 노래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서 술래모듬이 ‘죽었니? 살았니?’하고 물으면서 멈춰섰을 때, 여우가족 모듬이 ‘죽었다’라고 대답하면 술래모듬 전원은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 이 때 발을 움직이면 술래가 된다. 그리고 ‘살았다’라고 대답하면 술래모듬 전원은 가능한 빨리 도망가야 한다. 이 때 여우가족모듬은 뛰어가서 술래모듬을 잡는데 여기서 잡히면 술래가 된다.



- 술래가 된 사람은 한데 모여 모둠을 이루고 나머지는 여우가 죽이 되어 놀이를 다시 진행한다.

▶ 도움자료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술래)

잠잔다(여우)

잠꾸러기(술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술래)

세수한다(여우)

멋쟁이(술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술래)

밥먹는다(여우)

무슨 반찬?(술래)

개구리 반찬(여우)

죽었니? 살았니?(술래)

살았다! 「또는 죽었다!」(여우)

함께 술래 함께

여우야 여우야 뭐 하 니 잠 잔 다 잠꾸러-기

함께 술래 함께

여우야 여우야 뭐 하 니 세수한-다 멋 쟁 이

함께 술래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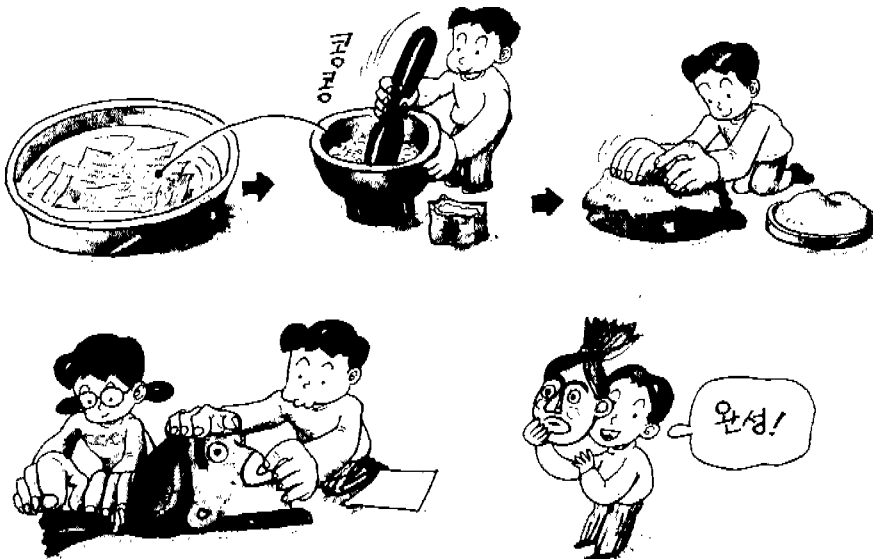
여우야 여우야 뭐 하 니 밥먹는-다 무슨반-찬

술래 함께 술래

개구리반-찬 죽었 니 살 았 니 살 았 다

활동 4 천년 후의 인간 모습

- ▶ 준비물 : 신문지와 마분지, 바가지, 절구 또는 절구 대용품, 노끈, 풀, 한지, 물감, 붓, 파렛트
- ▶ 활동내용
 - 3~4명을 한 모둠으로 만들고, 모둠별로 자기 모둠에서 만들 미래사회의 인간 모습을 구상한다.
 - 탈을 만든다.
 - ① 신문지와 마분지를 물에 불린다.
 - ② 종이가 풀어질 정도로 불면 절구에 붙은 종이와 풀을 찧는다.
 - ③ 찧은 종이를 바가지에 1~1.5cm정도 두께로 붙이고, 그 위에 자기 모둠에서 구상한 미래인간의 머리, 눈, 코, 입, 눈썹 등의 모습을 빗어 잘 말린다. 노끈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수염, 눈썹 등을 표현한다.
 - ④ 완전히 마르면 한지를 붙이고, 그 위에 자기 모둠 탈의 특성이 잘 살아나도록 색칠한다.
 - 완성되면 대표가 나와 자기 모둠의 미래형 탈을 설명하고, 전



체적으로 탈이 갖는 의의에 대해 되새긴다. 잘된 것은 선정하여 상을 준다.

▶ 도움자료

탈이란

탈은 사람나 동물의 얼굴 모양을 만들어 주로 얼굴에 써서 분장에 사용하는 것이다. 한자어로는 면, 면구, 가면, 대면, 가두, 가수 등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광대·초라니·탈·탈박·탈바가지 등으로 불려왔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탈’이라는 말이 가면을 나타내는 우리말로 쓰여지고 있지만 우리 탈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모두 얼굴 전면을 덮게 되어 있으며, 탈 뒤에는 ‘탈보(가면포)’가 붙어 있어서 이것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후두부를 가리게 되어 있다.

탈은 ‘가린다’ ‘감춘다’라는 은폐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한자어로 가면은 가짜 얼굴을 뜻한다. 탈은 동양이나 서양, 문명한 민족이나 미개한 민족이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민족 사이에 존재하며, 또 기원도 대단히 오래여서 원시민족사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탈을 만드는 재료

탈은 주로 나무, 종이, 흙, 바가지 등을 재료로 만든다. 그러나 짚과 풀을 사용한 경우도 많다. 특징이 강한 몇몇 탈놀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굿에서는 생활주변에 흔한 벚집으로 엮은 동구미나 삼태기, 땡땡이 혹은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 버들가지로 만든 키 따위의 민구류를 이용해 탈을 만들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나무탈이나 재료가 고급에 속했던 종이탈은 서민과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나라 탈의 특징

우리나라 탈은 한국적인 표정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의 골격과 용모가 잘 나타나 있으며, 역(役)에 따른 인물의 개성(특히 하회가면의 선비·양반·각시·중·백정)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탈은 대부분 그 형모가 괴이하고 또 색채가 짙은데 그 특질이 있지만, 그 표정에 있어 사실적인 것은 적고 대부분 상징적인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다. 예를 들면 양반 가면에서 대부분의 용모는 쌍언

청이, 언청이, 입비뿔이, 코비뿔이, 사팔뜨기 등 불구자인 것인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조에 있어서 양반계급에 대한 평민들의 감정이 탈에 반영된 것이다.

여러 가지 탈

눈썹적이탈, 움중탈, 목중탈, 소무탈, 할미탈, 말뚝이탈, 영노탈, 홍백탈, 차양반탈, 문둥이탈, 사지탈, 양반탈, 창귀씨탈, 광대씨탈

활동 5 시, 음악 그리고 풍류

▶ 준비물 : 옛시조가 녹음된 테잎(단시조, 중시조, 장시조), 배경 음악으로 적당한 전통 음악 또는 현대음악, 녹음재생기, 필기구

▶ 활동내용

- 전체적으로 옛시조 몇 수를 감상한다.
- 단시조, 중시조, 장시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감상한 단시조 중에서 한 수를 택하여 음수율을 배운다.
- 각자 자기 이름 석자를 초·중·종장의 첫 자로 하여 단시조를 짓는다. 외자 이름을 가진 청소년은 종장의 첫음절을 자유롭게 택해도 좋다. 그리고 종장의 첫 어절은 반드시 3음절을 지켜야 함을 상기시킨다.
- 시조가 완성되면 배경음악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한 명씩 낭독한다.
- 시조를 낭독한 느낌을 이야기하고 활동을 끝낸다.

▶ 도움자료

단시조의 음수율

3·4·3(4)·4

3·4·3(4)·4

3·5·4·3

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초장)

3 / 4 / 3(4) / 4

소치는 아해들은 상기 아니 일었느냐 (중장)

3 / 4 / 3(4) / 4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종장)

3 / 5 / 4 / 3

이름(홍길동)으로 지은 단시조의 예
 홍조 띤 너의 얼굴 뼈알간 꽃 한송이
 길가에 옮겨심어 나그네의 벼를 삼고
 동무와 함께 가꾸어 밝은 세상 만드세

활동 6 환경과 인간과 예술

▶ 준비물 : 스케치북, 4B연필, 먹, 벼루, 붓, 물감, 기타 수채화에
 필요한 도구

▶ 활동내용

- 전체적으로 초충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림 몇 점을 감상한다.
- 4~5명을 한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각기 다른 그림 그림
 장소로 이동한다.
- 각자 초충도의 소재(새, 개미, 벌, 애벌레, 매미, 고양이, 개,
 풀, 꽃, 나무 등)가 되는 것을 찾아 세밀히 관찰한다.
- 다음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다.
 - 도화지 전체에 여러 소재를 어떻게 배치할 지 구상한다.
 - 밑그림을 그린다.
 - 물감과 먹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색칠한다
- 그림이 완성되면 모둠별로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내용을 토
 의한다.
 - 평소에 눈여겨 보지 못했던 것들 중 그림 속에 표현된 것
 은 무엇인가
 - 전통예술작품 속에는 있지만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동
 식물은 무엇이 있는가
 - 환경과 예술작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예술작품과 인간의 생활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전체적으로 모여 모듈별로 토의된 내용과 그림을 발표하고 활동을 정리한다.

자료 :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과거 · 현재 · 미래의 잔치마당

□ 활동개요

미술, 음악, 공예와 건축 그리고 춤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전통예술을 주제로 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통예술의 진수를 미래로까지 이어가도록 한다.

□ 활동일정

얼마나 : 3박 4일

어디서 : 숙박이 가능한 자연권 수련시설

누구와 : 중·고 청소년 100명 내외

□ 활동일정표

시간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기상	기상	기상	
6:00	도착	등산·아침체조	등산·아침체조	등산·아침체조	
7:00		세면·정리	세면·정리	세면·정리	
7:3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8:00		문자이야기	우리 고장의 예술터를 찾아	미래를 그려요	
8:30					
9:00					
10:00					
10:30					
11:00		칼국수=칼+국수?		정리 및 평가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전통예술, 그리고 우리의 만남	도깨비방망이	예쁜 전통무늬 티셔츠만들기	귀가	
14:00					
15:00		상모춤놀이			
16: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7:00		몸으로 한국화그리기	설화가 있는 촌극		모닥굿축제
18:00					
18:30					
19:00					
20:00		신세대아리랑			
21:00	일과정리	일과정리	일과정리		
21:30	취침	취침	취침		
22:00					

□ 활동내용

활동 1 전통예술, 그리고 우리의 만남

- ▶ 준비물 : 종이, 물감, 가위, 풀 등
- ▶ 활동내용
 - 참가청소년 각자가 종이에 전통문양의 탈을 만든다.
 - 각자 탈을 쓰고 판소리 풍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 모듬구성원에 적합하게 판소리, 시조, 민화, 탈춤 등의 단어를 종이에 적고 참가자들이 하나씩 뽑도록 한다.
 - 모듬이 구성되면 모듬별로 각자 만든 탈을 모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간단한 전통극을 각본을 작성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모듬의 별칭을 마련한다.

활동 2 비디오 감상

- ▶ 준비물 : 비디오, 비디오테잎
- ▶ 활동내용
 - 전통예술에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준다.
 - 모듬별로 시청한 전통예술 관련 비디오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모듬의 대표가 나와 모듬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활동을 마친다.
- ▶ 도움자료
추천비디오 : 서편제, 휘모리, 기타 전통극 관련 비디오

활동 3 문자이야기

- ▶ 준비물 : 문자도 그림 몇 점(가능하면 초기, 중기, 후기 작품으로), 배접지, 세필, 먹물, 수채도구, 연필, 연습종이
- ▶ 활동내용

- 전체적으로 문자도를 몇 장 감상한다.
- 참여청소년 모두 자신에게 가장 의미있는 글자를 선택하고, 그 글자와 관련된 삽화들을 이야기하거나 적어 본다. 한문, 영어, 한글 중 어느 것도 상관없다.
- 연습종이에 연필로 스케치한다.
- 밑그림이 완성되면 준비한 배접지에 연필로 자연스럽게 옮긴다. 진하게 하거나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배접지에 밑그림이 옮겨지면 세필을 이용하여 먹으로 그린다
- 먹칠이 끝난 후 색칠을 해서 완성한다. 먹 때문에 물감이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
- 실기가 끝나면 서로 글자의 의미와 과정을 이야기하고 활동을 끝낸다.



▶ 도움자료

문자도

문자도 그림은 유교 윤리인 삼강오륜을 여덟 자의 글 즉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의(義), 염(廉), 치(恥)로 나타내어 항

상 교훈이 되게 여덟 폭 병풍으로 만든 글씨 그림이다.

초기:글자 안에 그림이 들어 있는 형식

중기:글자가 변형되면서 그림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형식

후기: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림의 비중이 커지는 형식
문자도의 매력은 먹색의 어우러짐이다. 먹이 차지하는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효를 상징하는 것에는 잉어, 죽순, 부채, 거문고가 있다.

제:형제의 우애와 정을 나타내는 것은 두견이와 비둘기, 매화가 있다.

충:충절을 나타내는 데는 대나무와 잉어를 그려넣는다. 잉어 대신 용을 그려 넣기도 하는데 용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상징한다

신:기러기가 신의를 상징

예:거북이나 별자리 모양의 그림

의:삼국지에 나오는 판우, 유비, 장비의 도원결의 모습과 의기투합하는 꿩과 새가 등장

염:수천리를 날다가 배가 고파도 조 따위는 먹지 않는다는 봉황,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도리를 상징하는 게의 뒷걸음질하는 모습과 가재를 그림

활동 4 칼국수 = 칼 + 국수 ?

▶ 준비물:밀가루, 콩가루, 물, 멸치, 도마, 밀대, 칼, 냄비, 양념
류(마늘, 파, 국간장, 소금), 달걀, 감자

▶ 활동내용

- 7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고 모둠별로 재료를 나누어 준다.
- 모둠별로 그릇에 밀가루, 콩가루, 소금 약간과 물을 넣고 밀랑밀랑하게 반죽한다.
- 반죽이 되면 밀가루 덩어리를 곱게 치댄 후 적당량을 썰어서 밀대로 0.3~0.4mm 정도의 두께가 될 때까지 민다.
- 적당하게 퍼진 밀가루를 넓게 펴놓고 모듬구성원이 모두 참

여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낸다. 얇게 편 밀가루 반죽을 여러 겹으로 접을 때는 접치는 면에 밀가루를 묻혀야 양쪽면이 달라붙지 않는다. 지도자는 모듬별 활동을 돌아보며 창의적인 모양 만들기와 모듬구성원 간의 협동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 냄비에는 물과 멸치를 넣고 팔팔 끓이다가, 감자를 넣는다. 여기에 위에서 만든 모양 낸 밀가루반죽을 넣고 끓인 후 마늘, 파, 계란을 넣고 간을 한 후 한소끔 더 끓인다.
- 음식이 완성되면 모듬별로 모여 나누어 먹고 나서, 우리 고유 음식의 맛과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이야기한다.

▶ 도움자료

향토 칼국수

경기도의 제물칼국수, 강원도의 메밀막국수, 안동의 건진국수, 함경도 감자국수

한국 향토음식의 특징

음식의 맛은 그 지방의 풍토 환경과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품성을 잘 나타낸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좁은 지형이어서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은 기후에 큰 차이가 있으며 북쪽은 산간지대, 남쪽은 평야지대여서 산물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향토음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형적으로 북부지방은 산이 많아 밭농사를 주로 하여 잡곡의 생산이 많고 서해안에 면해 있는 중부와 남부지방은 쌀농사를 주로 하므로 북쪽 지방은 주식으로 잡곡밥을, 남쪽 지방은 쌀밥과 보리밥을 먹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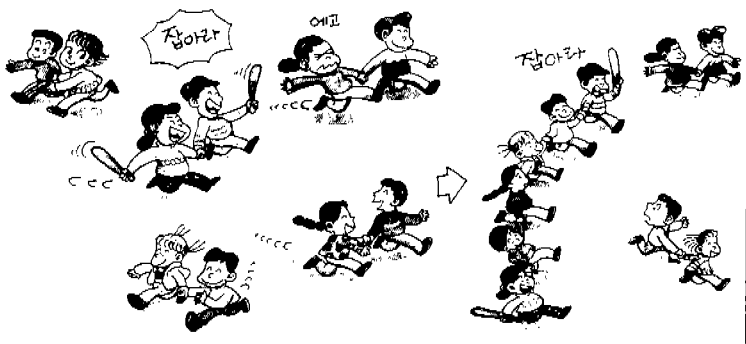
지방마다 음식의 맛이 다른 것은 그 지방의 기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부지방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음식의 간이 남쪽에 비하여 싱거운 편이고 매운맛은 덜하다. 음식의 크기도 큼직하고 양도 푸짐하게 마련하여 그 지방 사람들의 품성을 나타내 준다. 반면에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세면서 매운맛도 강하고 조미료와 젓갈을 많이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

활동 5 도깨비 방망이

▶ 준비물 : 도깨비 방망이(신문지 또는 종이)

▶ 활동과정

- 두명씩 짝을 짓고 술래쌍을 정한다. 도깨비놀이장의 경계를 긋는다. 각 쌍은 한 손을 잡고 술래쌍은 한 손을 다른 쌍과 마찬가지로 손을 잡고 자유로운 손에 방망이를 든다.
- 시작과 함께 술래쌍은 다른 쌍을 쫓는다. 이 때 술래쌍의 검이 닿은 쌍은 술래쌍에 더해진다. 마지막 한 쌍이 남을 때까지 계속한다.
- 4~5차례 정도 진행한 후, 마지막 남은 쌍끼리 경쟁을 한다. 이 때 술래는 이전에 탈락한 쌍 중에서 추첨으로 선택하여 술래가 2분 이내에 한 쌍도 안잡기고 방망이로 건드리면 ‘도깨비 방망이’ 주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쌍이 ‘도깨비 방망이’ 주인이 된다.
- ‘도깨비 방망이’ 주인은 특정 쌍을 지정하여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현장에서 민요제목을 말하면 지정받은 쌍은 민요를 부른다. 이런 과정을 5번 정도 계속하여 3쌍 이상이 민요를 부르지 못하면 ‘도깨비 방망이’쌍이 최종승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요를 가장 잘 부른 쌍이 승자가 된다.



활동 6 설화가 있는 촌극

▶ 준비물 : 설화 자료

▶ 활동내용

- 7~8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한다.
- 모둠별로 서로 다른 고전 또는 설화 자료를 나누어 갖는다.
- 각 모둠원중 한 명은 자기 모둠의 설화를 읽어주고, 나머지는 편안한 자세로 듣는다.
- 다 읽고 나면 모둠별로 토론을 통하여 설화에서 핵심되는 내용,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교훈 등을 잘 파악한다.
- 모둠별로 설화의 의미를 극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본을 창작한다.
- 대본을 중심으로 배역을 정하고 각자 자기 대사의 뜻과 대사에 담긴 감정을 파악한다.
- 창작한 대본을 중심으로 무대 구성이나 분장 없이 간단한 대화극을 꾸민다.
- 모둠별로 돌아가며 발표한다.
- 각 모둠원들의 참여 소감, 생각보다 쉬웠던 점,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활동을 정리한다.



▶ 도움자료
설화란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 설화 가운데 사실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흥미와 교훈을 위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설화는 구전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해 가는데, 설화의 구전은 일정한 몸짓이나 창곡과는 관계없이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 이야기 구조에 힘입어 전승된다. 즉 화자의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여 고스란히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이것에 화자 나름의 수식을 덧붙여 전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하면서도 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 표현 역시 복잡하지 않다.

설화는 이야기를 하고 들을 분위기가 조성되면 언제든지 구연될 수 있다. 설화의 분류는 시대와 장소, 그리고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보통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 셋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서로 넘나들기도 하고 상호 전환되기도 한다.

• 시간과 장소

신화는 아득한 옛날, 일상적인 경험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태초에 일어난 일이고, 특별한 신성장소를 무대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단군신화의 태백산·아사달은 신성장소의 좋은 예이다.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 “이조 속종대왕 시절 서울 남산골에”라고 시작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전설이 가지는 진실성을 뒷바침해 주는 구실을 한다.

민담에는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라고 하는데, ‘옛날 옛적’은 신화의 경우처럼 태초라는 뜻이 아니라 서사적인 과거일 뿐이고, ‘어느 곳’은 화자가 이야기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뜻이다.

• 주인공 및 그 행위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며, 그의 행위는 신이 지닌 능력의 발휘이

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보통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신성한 자라는 뜻이지, 인간과 구별되는 절대적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전설의 주인공은 구체적·역사적 인물로서 그의 행위는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던 관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설의 주인공은 신화나 민담의 주인공보다 왜소하며, 예기치 못했던 관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담의 주인공은 일상적인 인간이다. 비록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의 심리상태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주인공의 행위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 설화자료집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태평한화촬계전〉 〈용재총화〉 〈춘담해이〉 〈어우야담〉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 〈동패낙송〉 〈조선동화대집〉 등

- 의의

설화는 인류의 지혜와 정감이 농축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성과 변화를 수반하면서 전승된 구비문학이다.

활동 7 모닥굿축제

▶ 준비물 : 장작, 성냥, 장구, 북

▶ 활동내용

- 각 지방의 굿에 대해 설명한다.
- 전체 참여자를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의 5개 모둠으로 나누어 모둠별로 각 지역의 굿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을 굿으로 표현할 지 구상하게 한다.
- 구상이 끝나면 모둠별로 나와 굿을 펼친다.
-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모듬이 나와 장기자랑을 하면서 활동을 정리한다.

▶ 도움자료

각 지방의 굿

• 진오귀굿(서울·경기)

죽은 자를 위한 굿으로 이승에서 못다한 원한을 저승에 가서라도 풀어서 극락왕생하라는 명령을 위로하는 굿으로 서울·경기도 지방에서 행해진다. 본래 죽은 자가 된 후 13일만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도당굿(경기)

세습무로써 당골이라고도 한다. 도당굿은 부락제의 기원이다. 도당이란 도읍의 당이란 뜻으로 중부지방 특히 도읍지에서 행하였으며 우리나라 전국의 부락제형을 분류하면, 경기도는 도당굿, 경상도는 별신굿, 강원도는 단오굿, 평안도는 당굿이라고 한다.

• 양반굿(충청도)

충청도 무속은 좌정하여 송정하는 ‘앉은 굿’이 특징이다. 소위 충청도 양반 기질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명 ‘양반굿’이라고 한다. 무당은 한복에 갓을 쓰고 악기로는 북과 징만을 사용하여 방안에서 굿을 하는 좌무가 주류를 이룬다.

• 셋김굿(호남)

호남지방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를 위한 굿으로 이승에서의 한을 풀어 극락왕생하도록 축원하는 굿이지만 굿을 행하는 장소와 시일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셋김굿에서 셋김이란 광안의 신체모형을 만들어 무당이 셋기는 것인데 이것은 사망한지 얼마 안되는 영혼에는 사세가 강하다고 하는 원시적 관념에서 생겨난 의례로서 불교적 습합성이 다분하다.

• 영등굿(제주도)

영등신은 비바람을 일으키는 신으로서 제주도 영등굿은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 전복, 미역 등을 증식시켜 주고 풍어와 안전을 지켜주는 영등신을 위한 굿이다. 영등신은 음력 2월 1일에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15일에 다시 나가는 신이라고 믿어지며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제주도 해안 마을 곳곳에서 영등굿이 행해지는 이른바 마을의 공동제의이다.

자료 : 한국무용사. 1989.

III. 도움과정

전통예술의 이해
우리의 미술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예·건축
우리의 춤

전통예술의 이해

예술은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과 이상을 자기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이다. 이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을 예술가라 부르고 예술작품은 예술가의 직관력을 예술적 행위로 나타낸 기술(art)의 총체이다. 예술의 주체가 되는 예술가와 예술작품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역사와 사회성을 반영하는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통예술은 우리의 삶이다. 삶의 굴곡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예술 형태가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지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전통예술 이해는 우리의 역사적 습결과 애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삶의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소위 삶을 생리적 욕구의 대응 또는 충족의 과정이라는 차원을 높여 문화를 향유하는 질 높은 생활이라고 볼 때 예술과 문화는 삶의 유연하고 의미있는 역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양식이다.

우리 전통은 예술과 문화로서 재평가되고 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은 단순히 연속성이 있는 과거의 사상이나 관습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통의 연속성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의 연속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개념 속에서 현재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으로 파악하고 미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는 위치속에서 찾아야 한다. 역사의 일정한 시간 속에서 전혀 망각되어져 있던 예술작품과 예술가가 후대에 와서 높이 평가받는 일은 흔하다. 이처럼 현재 시점에서 전통에 대한 주관적인 재평가는 현재 삶의 가치와 형태를 기초로 한다. 현재 삶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적 관계의 관련성과 평가하는 능력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전통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재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또는 전통예술의 사상과 형태의 기초는 인간이다.

예컨대 동양화와 서양화가 모두 자연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양화의 화의(畫意)가 자연을 하나의 존재태로 보고 그것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사실적,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자연을 재창조하려는데 있다고 한다면, 동양화는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형성된 사상이나 정서를 자연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술의욕은 그 출발부터 다른 것이다. 또한 옛 동양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을 우주의 가운데 놓고 모든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의 생태를 인간 중심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인간사와 결부시켜 해석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통예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적 사상이나 작품 제작 당시의 사회상과 미적 기준 등에 입각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전통예술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단순히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역사에 비해서 전통예술의 유산과 기술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은 올바른 이해의 전제조건이 된다. 즉 생활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예술의 모습과 의미를 부단히 되살리려는 노력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전통예술은 사회중심적 역할을 하기 보다는 민중의 삶의 애환을 풀어내는 한 양식으로 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치나 멋의 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사적 계승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전통예술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이 보인다. 조선이후 단절된 우리문화와 서구화의 영향에서 그렇치 않아도 역사성을 찾기 힘든 전통예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제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민족과 전통의식에 대한 자각이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새삼스럽게 불러 일으키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속에서 스며들고 있지 못하다. 느린 음악리듬과 단순한 미술색채는 현란하고 빠른 현대예술의 흐름과 사회 속에서 전통이라는 미명아래 새로운 구색맞추기와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새로운 계층의 별다른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우리전통예술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관심을 바람직한 이해로 한 단계 더 높이고, 미래의 영구성을 갖는 우리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전통예술을 적응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있는 그대로의 과거의 예술적 형태와 기술 등을 재현하고 보존하려는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예술의 진정한 이해는 우리 몸과 마음의 진정한 터전을 발견하고 개척하려는 의지와 함께 전통예술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금 — 나의 모습에서 인식되는 왜곡되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예술의 형태는 미적 예단이나 가치판단을 보류한 채 정리하여 미래로 계승시키려는 역사적 안목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1995.

우리의 미술

한국적 색채

우리가 예로부터 표현해 온 한국적 기본 색깔은 청·적·백·흑·황 다섯가지이다. 오방색으로 알려진 이 다섯 색깔은 밝은 중간색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온갖 생활용품에서 중간색은 다양하게 드러나며, 그 위에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색깔의 이면에 담긴 뜻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특징이다.

민화에는 대개 남·주·황·록을 기본으로 때로는 홍·자·흑·백이 곁들여지는 색상으로 그려진다. 우리의 오방색은 천연의 물감에서 나온 것이며, 이 중간색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연의 색인 것이다.

오방색을 위주로 한 한국적 색채는 상징적 의미와 대비관계가 두드러지는데 서양적 의미의 채도·명암을 찾기 힘들다. 선의 보완적 관계로서의 색채의 기능은 벽화나 민화, 장식미술에 주로 사용되어 삶의 현실육과 종교감정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산수화

산수화는 산과 강 등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해서 그린 동양회화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의 산수화는 자연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의 반영이기도 하다. 농경을 주로 하는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매우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무생명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체처럼 살아서 생동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구도나 공간개념, 각 경물들의 묘사법 등에서 중국의 화풍을 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특유의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시대를 달리하며 한국적 화풍의 형성과 전개에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5세기경 삼국시대에 인물화 등의 배경적 요소로 그려지기 시작했던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고려시대를 통하여 순수 감상화로서 크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천을 소재로 하는 실경산수의 전통을 형성 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먹이나 채색을 써서 붓으로 그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산수화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다. 고구려의 대표적 산수화는 수렵도에 기마인물의 배경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있고, 백제의 산수화로는 산수문전이 있으며, 신라의 것은 누각산수문양과 같은 공예품의 형식적인 도안을 통해서 산수적 요소의 양태를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산수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때는 고려시대이다. 이 시대의 산수화는 중국 회화의 자극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독자적 화풍을 발전시켜 고도로 발전된 산수화의 일면을 엿보게 한다.



〈몽유도원도〉안건 :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신비로운 도원경 이야기를 듣고 안건이 3일 만에 그렸다고 함. 구도상 왼쪽부터 4단계로 현실세계, 도원입구, 중간경치, 환상적인 도원세계를 겹본에 수목담채로 그림. 현실세계는 나즈막한 토산으로 표현된데 비해 선경으로 갈수록 기괴한 암석으로 처리, 고원의 선경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인물화

사상적 배경 : 산수화와 더불어 동양회화의 주요한 분야로 유교적인 현실주의와 교회주의(敎化主義)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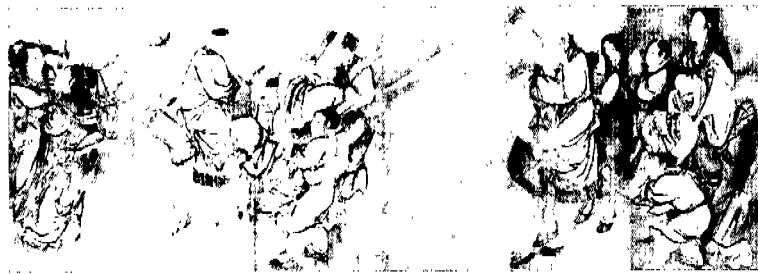
유형 : 주제에 따라 고사숙의 인물(고사인물화), 도교나 불교주제의 인물(도석인물화), 풍속화, 초상화 등으로 나뉘어진다.

고사인물화

옛 이야기 속의 인물을 주제로 하여 그 인물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그림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화제로는 행락도, 탁죽도, 관폭도, 송하인물도 등이 있다.

도석인물화

도교적인 주제의 인물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선도이며, 불교적인 주제의 인물화는 선종화나 조사도, 나한도 및 산신도 등이 포함된다.



〈군선도〉, 김홍도, 지본담채 : 신선도에 자주 등장하는 수성노인은 긴 수염에 정수리 부분이 흑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그린다. 신선들은 장수, 청춘 등 인간소망을 대변한다. 화풍은 대체로 필선의 변화없이 유려하게 다루어지는 고개지 양식과 필선의 굵고 가는 차이를 주는 오도자 양식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풍속화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의 정경을 소재로 그린 그림이다. 풍속화의 주인공도 인물이지만 초상화처럼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풍속화의 주제는 자연과 사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사를 표현한 것과 일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두가지의 것으로 대별된다. 넓은 의미의 풍속화는 인간의 여러 행사나 일상생활을 표현한 그림이다.



신윤복. 심계유묵(深溪游沐), 18세기말~19세기초. 지본채색, 간송미술관

즉 왕실이나 조정의 각종 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 같은 것을 묘사한 그림들이 여기에 속한다. 좁은 의미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잡다한 생활모습, 양반들의 유희, 농사풍경 따위를 다룬 것이다.

초상화

나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특정 인물을 그린 그림이다. 옛날부터 초상화는 대상인물을 똑같이 그리는 데 온힘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인물묘사를 통하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정신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의 ‘전신사조’, 즉 전신이 강조되었다. 이는 인물의 외적인 생김새를 본따서 그리는 그림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특질을 넘어서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불변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을 뜻한다.

인물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묘법에는 윤곽선을 표현하는 구름법과 물골법, 백묘법이 있으며, 인물의 입체감을 두드러지게 할 때 사용



변박 改模, 동래부순절도, 1709년 초필. 1760년 개필. 견본채색, 육군사관학교

하는 요철법도 있다. 이밖에 철선묘, 감필묘, 유엽묘, 혼묘, 절로묘 등 18종으로 나뉘기도 한다.

기록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들을 사실에 충실하게 그리는 기념적인 그림을 말한다.

영모·화조화

새와 짐승, 꽃 등을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영은 새의 날개 깃털을 의미하며 모(毛)는 짐승의 털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영모라고 할 때는 새그림만을 지칭하다가 근세로 내려오면서 새와 짐승의 그림을 모두 영모화라고 말하게 되었다.

화조화 역시 꽃과 새를 소재로 하여 그린 것으로 초충도, 화훼도 등도 크게는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들 그림의 소재가 되는 여러가지 꽃과 새는 대부분 동양문화의 오랜 전통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모란은 부귀를 원앙새는 부부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초충도는 풀과 벌레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풀 초라는 글자는 여러



모견도. 이암, 16세기 중엽, 지본담채

노수서작도. 조숙, 17세기, 견본수묵

가지 꽃과 과일 등을 포함하는 말로 초충도에는 실제로 다양한 식물들과 곤충들이 다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초충도는 세필을 요하는 그림이어서 사실적인 묘사기법에 익숙한 화원들이 많이 그렸다.

문인화·사군자

춘하추동에 해당하는 네 가지 식물, 즉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그림을 말한다. 직업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 선비계층의 사람들이 취미나 여가(餘技)로 그린 그림으로 화가의 내면세계나 사의를 표현하여 간결하면서도 격조높은 문인풍의 그림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문인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지 않으므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외형을 충실히 묘사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묵화(墨戲)의 대상으로 삼았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릎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며, 난초는 은은한 향기를 멀리 까지 퍼뜨리고,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내며, 대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한다는 각 식물 특유의 장점을 군자, 즉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에 비유한 것이다. 매·난·국은 화조화의 일부로 발달하기 시작하다가 북송때 문인화의 이론과 수묵화의 발달과 더불어 차츰 문인화의 소재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민화

일반 서민들이 애호하던 그림으로 생활공간을 장식한다거나 민속적인 관습으로 제작되었던 실용화를 가리킨다. 민화는 대개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받지 않은 무명화가 이거나 떠돌이 화가들이 그렸으며, 서민들의 일상생활 양식이라든지 관습에 바탕을 두고 발달하였기 때문에 일회적인 창작보다는 반복적이고 형식화된 유형에 따라 계승되었다. 따라서 민화는 일반회화보다 묘사의 세련도나 품격이 뒤떨어지지만, 익살스럽고 소박한 형태의 대담한 구성, 현란한 색채로 특징지어지는 양식은 오히려 한국적인 미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일상적인 생활과 밀착되어 세시풍속과 같은 행사용으로 제

작하거나, 집안 곳곳의 문, 벽장, 병풍, 벽 등을 장식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나쁜 귀신을 막는 주술적인 성격의 액막이 그림으로도 그려졌다. 따라서 민화는 그 내용이나 발상 등에서 일반회화보다 한국적인 정서를 더 많이 반영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심장생도

늙지 않고 오래 장수하고자 하는 염원을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는 10가지 자연물로 구성된 그림. 여기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영지)가 있다. 심장생도는 주로 정월 초에 새해를 축하하고 복받기를 기원하던 세화나 회갑 등에서 장수하기를 희망하여 그려졌던 그림이며, 일정한 형식과 도식적인 형태에 질고 화려한 채색을 하여 장식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심장생도 병풍. 조선후기, 견본채색

문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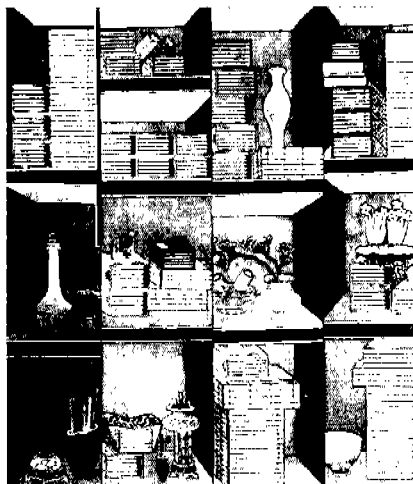
삼강오륜을 비롯한 유교적인 윤리관을 나타내는 여덟 글자를 그림으로 풀어서 나타낸 것. 여덟 글자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이다. 문자도는 글과 그림이 결합되는 형태로 구성되는데, 글자의 획 속에 각 글자에 해당되는 중국의 고사를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고사도의 일종이기도 하다. 각 글자 속에는 서너 가지의 유명한 일화가 복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 글자의 획이 흐뜨러지고 일화의 내용보다 상징할 수 있는 소재가 문양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징적인 양상을 띤다.



호, 19세기, 견본채색, 문자도

책거리그림

책을 비롯하여 선비와 관련이 깊은 문방구와 각종 기물들을 조합하여 구성한 그림을 말한다. 형식은 크게 탁자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경우와 서안을 중심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책거리그림, 18세기 말, 견본채색.

평생도

옛날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내용을 태어나고 자라서 벼슬하고 죽어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려놓은 그림을 말한다.

자료 :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1994.

한국의 미 : 선 색 형. 1995.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우리의 음악

국악의 갈래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악은 양반들이 즐겨하던 음악이고, 민속악은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기쁘고 슬픈, 혹은 한스럽고 힘든 일들을 솔직하게 표현한 음악이다.

정악

- 제례악 : 제사지낼 때 쓰던 음악. 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 풍류음악 : 양반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던 것. 예) 영산회상, 여민락, 수연장지곡, 천년만세 등

① 영산회상 : 원래 ‘영산회상 불보살’의 7자를 노래로 부르던 불교음악이었는데, 조선시대 정조, 순조 이후 점차 세속화되면서 변화, 확대, 발전하여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악곡의 하나가 되었다.

영산회상은 거문고, 가야금 등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현악 영산회상(일명 거문고 회상, 중광지곡), 현악 영산회상을 4도 아래로 조옮김한 평조회상(일명 유초신지곡), 향피리기 중심이 되는 삼현 영산회상(일명 표정만방지곡)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이는 모두 8~9개의 곡, 즉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 도드리, 하현 도드리(평조회상과 삼현 영산회상에는 없음), 염불 도드리, 타령, 군악 등이 모여 이루어진 곡이며, 느린 상영산으로 시작하여 곡이 더할수록 점차 빨라진다.

② 여민락 : 원래 조선시대 세종 때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지은 ‘용비어천가’의 순한문 가사 1, 2, 3, 4, 125장에 관현악 반주를 얹어 노래부르던 성악곡이었으나 지금은 기악곡으로 남아 있다. 여민락은 세종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일명 <승평만세지곡>이라고도 한다. 원래

는 10장으로 구성되었으나 지금은 7장으로 되어 있고 평조이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4장부터 빨라지며, 그 느낌은 깊고 평화로우며 정대하다.

- 정가: 선비들이 사랑방이나 시원한 정자에 모여 앉아 부르던 노래. 예) 시조, 가곡, 가사(긴사설에 노래를 붙여 부르는 것)

① 시조: 시조시를 가사로 하여 부르는 노래. 장구나 무릎 장단으로도 부를 수 있고, 또는 세피리, 단소, 해금 등의 악기로 반주할 수도 있다. 전 3장으로 되어 있으며, 가사의 제일 끝부분인 ‘하느니’ ‘하오니라’ 등 3~4가지는 생략하고 노래를 하지 않는다. 평시조가 시조의 원형으로서, 지방에 따라 경제, 완제, 내포제, 영제 등이 있고, 부르는 창법에 따라 평시조, 지름시조, 중거시조 등이 있다. 느린 속도의 진행에 따른 요성과 셈여림의 변화는 풍부한 표현력을 한층 더해 준다.

② 가곡: 원래 만대엽(느린 것), 중대엽(중간 속도), 삭대엽(빠른 것)이 있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만대엽과 중대엽은 없어지고, 지금은 삭대엽만이 불려지고 있다. 가곡은 남성들이 부르는 남창 가곡, 여성이 부르는 여창 가곡이 있으며, 5장 형식에 대여음과 중여음이 있고 관현악 반주(세악 편성)에 따라 부른다. 장단에는 16박과 10박이 있으며, 음계는 평조와 계면조이다.

③ 가사: 12곡이 있어 12가사라고도 하며, 시조와 같이 장구 장단에 의하여 많이 불려지고 있다. 창법은 요성법과 퇴성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민속악의 창법과 비슷하다. 즉 12가사의 창법은 아악과 민속악의 중간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취악: 임금이나 고관들의 행차시 쓰던 일종의 행진곡 예) 대취타, 취타, 길꾼악 등

① 대취타: 편성 악기는 가락 연주의 태평소, 리듬을 연주하는 징, 자바라, 용고, 장구 등의 타악기와 나각, 나발같이 한 음을 길게 내는 악기들로 편성된다. 이 음악의 느낌은 웅장하고 장중하며, 그 씩씩함이 장쾌한 느낌을 준다.

② 취타: 만파장식지곡이라고도 함. 이 곡은 대취타를 관현악곡

으로 편성한 곡이다. 편성악기는 거문고, 가야금, 대금, 향피리, 해금, 북(좌고), 편종, 편경, 아쟁, 소금, 장구, 단소, 양금 등으로 편성된다. 이 음악은 행진곡풍의 쾌활한 장단과 씩씩한 가락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아름답다.

민속악

- 성악곡 : 판소리, 단가, 선소리, 잡가, 민요가요

① 판소리 : 소리꾼과 반주하는 고수가 노래와 몸짓, 재담을 섞어가며 하는 1인 노래극. 숙종 이후 예술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처음에는 12마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등 5마당이 남아 있다. 판소리의 장단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등이 있는데, 소리의 변화에 따른 고수의 추임새와 장단이 판소리의 멋을 한층 돋구어 주고 있다.

판소리는 긴 이야기로 이루어진 사설이다. 판소리는 ‘판’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판’이란 사람들이 모인 자리 또는 무엇이 벌어진 자리라는 뜻이고, 소리란 우리 전통의 모심는 소리와 상여소리 등에서 일컫듯이 노래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왔다.

조선시대 숙종(1674~1729) 때에 독립된 예술 형태로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 판소리는 혼자 북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독창음악으로서 일반 백성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서민 음악으로 발달하였다.

판소리의 기본 구성요소는 창, 아니리, 발림의 3가지이다. ‘창’이란 곧 성가(聲歌)를 뜻하고, ‘아니리’란 음곡을 패제한 서술이란 뜻이며, ‘발림’이란 창을 하면서 취하는 여러 가지의 동작, 즉 몸짓을 말한다. 창자는 창의력이 풍부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어나가는 한편 자기 나름대로의 창의력을 다채롭게 발휘한다.

판소리에서 북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부른다.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쳐서 소리를 반주에 주며 ‘얼씨구’, ‘으이’, ‘좋지’ 등의

김탄사를 중간 중간에 넣어주는데, 이를 추임새라고 한다. 판 소리의 장단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엇모리, 엇 중모리 등이 있다. 가장 느린 장단에서부터 가장 빠른 장단까지 다양한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판소리는 원래 열두마당이었으나 19세기에 와서 여섯 마당으로 줄어들었다. 오늘날에는 그 중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다섯 마당만이 전한다. 여기서 마당이란 말은 판소리의 한 편을 뜻하는 말이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희노애락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민중의 음악, 즉 서민의 음악이다.

- ② 단가 : 소리꾼이 판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하여 부르는 짤막한 노래. 장단은 중모리나 중중모리가 많이 쓰임. 진국명산, 만고강산 등이 있음.
- ③ 가야금 병창 : 노래부르는 사람이 자신의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판소리 중의 한 대목이나 단가를 부르는 것을 말함. 사랑가, 죽장짚고(죽장망혜) 등이 있음. 장단은 대개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이 있음.
- ④ 창극 : 판소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배역을 맡아 각각 창을 중심으로 무대화한 것을 말함.
- ⑤ 선소리 : 야외에서 여러 소리꾼들이 흥겹게 춤을 추어가며 함께 부르는 노래.
- ⑥ 잡가 :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가곡이나 시조, 가사에 비해 가락이나 가사가 조금 조잡한 음악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임. 잡가는 사실이 길어 긴잡가라고도 하고 얹아서 부른다 하여 좌창이라고도 함. 예) 12잡가
- ⑦ 민요 : 서민들이 스스로 일터에서나 놀이터에서 즐겨불렀던 노래. 특별한 재주나 기교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모두 함께 즐기고 노는 음악, 한과 신명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노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민요. 민요는 민중에 의해 만들어졌고 집단적으로 불리워졌기 때문에 작사·작곡자는 모

두 익명인 것이 많음.

• 기악곡 : 산조, 시나위, 농악

① 산조 : 남도 지방의 기악 독주곡으로 장단은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를 중심으로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아쟁산조, 피리산조 등 각 악기들마다 가지고 있는 음색을 특색있게 표현한다. 다양한 꾸밈음과 리듬, 농현, 전성, 퇴성 등을 혼합한 기교가 산조의 특징이다.

② 시나위 : 기악 합주곡으로서 여러 악기가 연주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내는 듯 하면서도 자연스런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각 악기의 기교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연주하는 것은 음악의 생명력을 한층 더해준다. 장단은 중중모리, 굿거리, 자진모리 등을 사용한다.

③ 농악 : 농악은 삼한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농악은 농민들이 농사일을 할 때 피로를 잊으며 집단적으로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음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농악은 원래 풍물, 풍장, 대구, 굿으로 불려졌는데. 팽과리를 치는 상쇠의 이끄는 따라 진법을 뛰어 가며 팽과리, 징, 북, 장구 등 타악기의 리듬 연주와 태평소의 가락연주에 맞추어 소고를 든 사람과 그 외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용을 한다. 농악 중의 상모를 돌리는 모습, 설장구를 치는 광경은 농악의 꽃이라 할 만하다.

지방마다 특색을 지닌 농악이 있는데, 평택·안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농악, 전라도 좌도농악, 전라도 우도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강원도 지방의 강원농악 등이 있다.

전래동요, 민요,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창작곡

굿거리 장단

「사랑하는 엄마 아빠」 「어깨춤」 「개구리」 「할머니 안경」 「시골집」 「가야금타령」 「고드름」 「타작」 「나비」 「대추나무」 「장구소리」 「풍년가」 「바람」

세마치 장단

「귀뚜라미」「뱃노래」「허수아비」「무지개」「소방차」「아기염소」
「잠자리」「편지」「동근달」

티령장단

「손을 씻어요」「물레방아」「수박소리」「낙엽」「가을바람」

중모리장단

「부모님」

중중모리 장단

「바닷가」「내고향」「널뛰기」「농부가」

자진모리 장단

「봄바람」「누룽지」「흔들어 볍시다」「별나라」「내얼굴」「뽕뽕자」
「산들바람」

단모리 장단

「악기 소리」「엄마돼지 아기돼지」「오리의 행진」「금붕어」「불조
심」「저녁식사」「즐거운 우리」「손놀이」

우리나라 악기의 구분

악기의 쓰임에 따라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악기 :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양금, 피
리, 대금, 소금, 단소, 통소, 새납, 생황, 편종, 편경, 쟁과리. 장구,
북, 징, 소고, 바라, 박 등 20여종

그 밖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악기 : 특종, 특경, 훈, 소라, 나발, 축,
어용고, 운라 등

소멸된 악기 : 비파, 중금, 월금, 공후 등 제례악이나 취타 등 궁중
의 특별한 의식에 쓰이던 악기들

재료에 따른 국악기

국악기의 재료는 8음이라고 해서 모두 여덟가지가 쓰임

쇠붙이로 만든 악기(금부) : 징, 나발, 편종, 특종 등

실을 엮어 만든 악기(사부) :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등

대나무로 만든 악기(죽부) : 대금, 소금, 피리, 단소, 통소, 새납(태

평소) 등

가죽으로 만든 악기(혁부) : 장구, 북, 소고 등

나무로 만든 악기(목부) : 박, 축, 어 등

흙을 구어 만든 악기(토부) : 훈 등

바가지로 만든 악기(포부) : 생황 등

돌로 만든 악기(석부) : 편경, 특경, 나각 등

연주방법에 따라

관악기 : 대금, 피리, 단소, 통소, 소금, 새납, 나발, 나각 등 관을 통해 소리를 내는 악기

현악기 : 거문고, 가야금, 해금, 아쟁, 양금 등 실을 꼬아 만든 줄을 튕기거나 치거나 활로 밀어 소리를 내는 악기

타악기 : 장구, 북, 팽파리, 소고, 박, 편종, 편경, 특종, 특경, 운라 등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

우리나라의 악기

대금

대금은 중금, 소금과 함께 신라 삼죽(三竹)의 하나이다. 젓대라고도 부르며, 정악대금과 산조대금이 있다. 취공 1개, 청공 1개, 지공 6개가 있으며, 칠성공은 하나 또는 두개가 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영산회상,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등 정악에 사용되고, 시나위, 민요, 산조 등 민속악에도 쓰인다.

소금

소금은 신라 삼죽 중 가장 작은 악기이며, 높은 음높이를 갖고 있어 대금보다 한 옥타브가 높다. 취공 1개, 지공 7개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악지에는 7공으로 되어 있고, 악학궐범에는 13공으로 되어 있으며, 1950년대에 와서 다시 8공으로 개량되어 정악에 널리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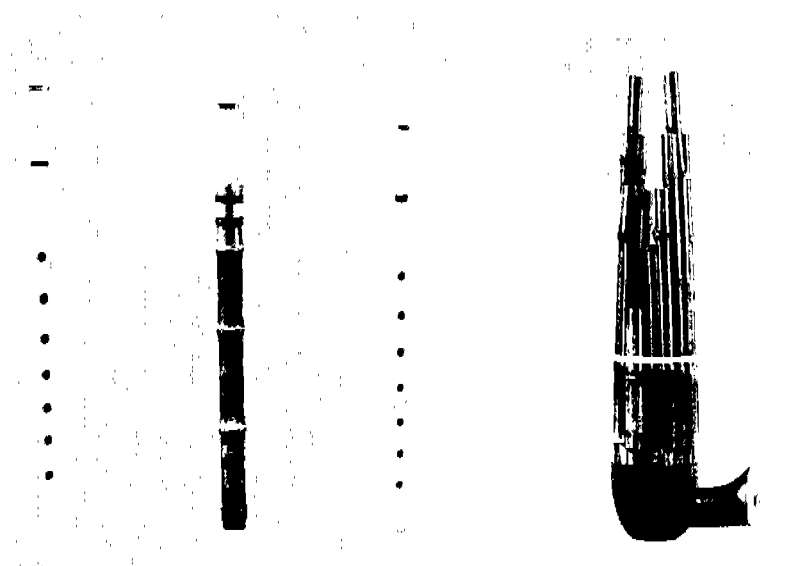
단소

단소는 통소보다 작고, 지공이 뒤에 1개, 앞에 4개가 있으며 세로로 분다. 단소는 양금과 함께 악학궐범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조 후기에 생긴 듯하며, 영산회상과 자진한잎 같은 관현합주에 사용되고, 관현합주 외에 생황과 어울려 연주되는 ‘생소 병주’나 양금과도 잘 어울린다.

피리

피리에는 향피리, 당피리, 세피리의 3종류가 있으며, 모두 8개의 지공을 가진 죽관(竹管)에 대를 깎아서 만든 겹으로 된 서를 꽂아 분다.

향피리는 고구려 때부터 사용되었고, 당피리는 죽관이 가늘어서 입



김이 통하는 내경(內徑)이 좁고, 서가 작기 때문에 불기 힘들며, 실내악 규모에 쓰인다. 향피리는 향악을 연주할 때, 당피리는 당악을 연주할 때 쓰인다.

생황

생황은 박통 속에 죽관을 나란히 꽂은 것으로, 죽관 아래쪽 밖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나고, 열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죽관 하단에 금속청이 달려서 하모니카와 같은 원리로 숨을 내쉬고 들어 마실 때 소리가 난다. 생황을 바가지(포부)에 넣은 이유는 입김을 불어넣는 통을 옛날에는 박통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무로 만든다.

여러 개의 소리가 동시에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악기중 유일한 화음악기라고도 부르며, 단소나 양금과 어울려 연주되는 병주나 세악 합주 등에 쓰인다

문헌에 의하면 고구려, 백제에 생황이 있었고, 725년에 만들어진 상원사 종에 그 모양이 새겨져 있다. 문헌에는 생(笙)으로 기록되어 있다.

훈

훈은 점토를 구워서 만들기도 하고, 백면화(白綿花)를 점토와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 훈의 취구는 위에 있으며, 지공은 앞에 3개, 뒤에 2개가 있다. 훈은 정확한 음정을 내기가 어렵고, 음색은 비교적 어두운 편이며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난다.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문묘제례악에 쓰인다.

축

축은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짜고, 그 뚜껑 위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속에 방망이를 꽂는다. 그리고 이 상자는 대 위에 올려져 있다.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로서 동쪽에 놓고, 끝나는 것을 알리는 어는 서쪽에 놓는다. 음악을 시작할 때 먼저 특종을 친 다음, 축 세번, 절고 한 번 치는 것을 세 차례 반복한 다음, 다시 특종을

한 번 치고서 합주가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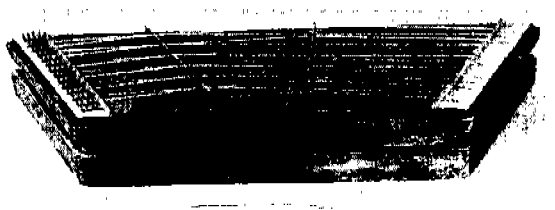
축은 어와 함께 문묘와 종묘의 제례악에 사용된다.

어

어는 나무로 호랑이 등 위에 27개의 톱니가 있으며, 이것을 대나무 채로 긁어서 소리를 낸다. 문묘와 종묘의 제례악에 쓰이며, 음악을 마칠 때 이흠 갈래로 쪼개진 대나무 채로 호랑의 머리를 세 번 치고 등 위의 톱니를 ‘드르록’하고 내려 긁기를 세 번 반복한다.

양금

다른 금의 종류가 모두 명주실인데 반하여 양금은 철사로 되어 있다. 음 높이가 같은 네 가닥짜리 구리철사 14벌이 2패에 의하여 울림통 위에 좌, 우, 중앙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로 깎아 만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조선 영조 때부터 사용된 이 악기는 영상희상과 가곡 반주에 많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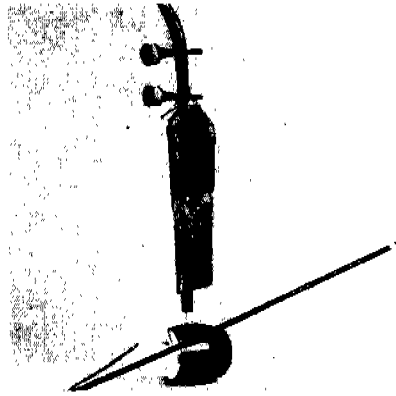
해금

울림통 위에 연결된 2줄 사이에 말총 활대를 끼워 문질러 소리를 내며, 울림통은 대(竹), 줄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다.

고려 때부터 사용된 이 악기는 정악과 민속악에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 해금은 현악기이지만 관악에 반드시 편성되는 점이 특이하다.

아쟁

아쟁은 울림통 위에 7줄이 안죽(雁足)으로 받쳐져 있으며, 개나리



나무로 만든 활대로 줄을 문질러 소리를 낸다. 음색은 거칠은 편이나 웅장하다.

고려때부터 사용된 이 악기는 지금도 정악과 민속악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산조를 포함한 민속악을 위해 만들어진 아쟁을 산조 아쟁이라 한다.

가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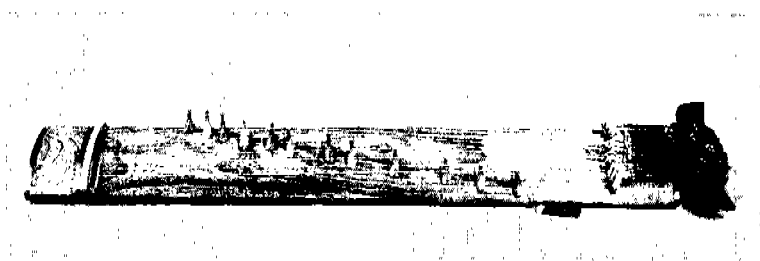
가야금은 위에 오동나무, 밑에는 단단한 밤나무로 만든 울림통 위에 12줄이 안족(雁足)으로 받쳐져 있다. 왼손으로 줄을 누르면서 오른 손으로 뜯거나 뚫겨 소리를 낸다.

가야금에는 정악에 쓰이는 법금(풍류 가야금)과 산조에 쓰이는 산조 가야금이 있는데. 법금은 줄과 줄 사이가 넓으나, 산조 가야금은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빠른 곡을 연주하기에 편리하다

이 악기는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들어 신라 진흥왕 때에 신

라에 전해졌다. 일본 나라(奈良) 정창원(正倉院)에 전해져 오는 신라금(新羅琴)과 경주 부근에서 발견된 토우는 현재의 법금과 같은 것이다.

가야금은 거문고와 같이 줄풍류 가곡의 반주 등에 많이 쓰이며, 산조가 생기면서 독주 악기로도 각광을 받아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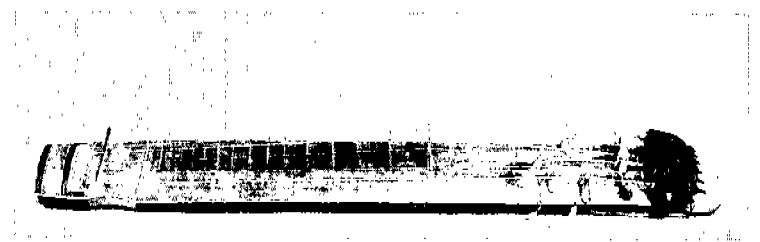


거문고

울림통 위에 6줄이 얹어져 있으며, 제 2, 3, 4현은 16괘 위에 걸쳐져 있고, 제 1, 5, 6현은 안족(雁足)으로 받쳐져 있다. 해죽(海竹)으로 만든 술대로 치거나 뜯어서 소리를 낸다.

거문고는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들었다고 전하며, 고구려 고분의 하나인 무용총의 벽화에서 그 원형과 비슷한 것이 보인다.

삼국사기에 「처음 진나라 사람이 7현금을 고구려에 보냈었는데, 왕산악이 원형을 그대로 두고 제도를 많이 고쳐 만들고, 백여곡을 지어 연주할 때 검은 학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그래서 악기 이름을 현학금(玄鶴琴)이라 하였는데 뒤에 현금이라고 불리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편경

단단한 경석으로 만든 16개의 ㄱ자 모양의 돌을 매단 것으로, 편종과 짝을 이룬다. 소의 뿔로 경의 긴 쪽을 친다.

고려 때부터 사용된 이 악기는 조선 세종 때 박연이 개량하여 많이 제작했고, 지금도 종묘, 문묘 제례악, 낙양춘, 보허자 등에 사용된다.

박

6개의 판자쪽을 사슴 가죽 끈에 꿰어 만든 타악기로, 음악을 시작할 때 한 번, 끝마칠 때 세 번 침으로써 지휘를 하고, 무용에서 춤사위가 달라질 때마다 박을 쳐서 지시를 한다.

박은 통일신라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박치는 사람을 집박(執拍)이라 한다

편종

16개의 종을 상단과 하단에 각각 8개씩 매달았으며, 종의 크기는 다 같으나 그 두께가 조금씩 다른데, 종이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얇으면 소리가 낮다. 각퇴로 종의 아래에 둥근 표를 한 부분을 쳐서 소리를 낸다.

편경과 같이 고려 때 송나라에서 수입되어, 세종 때 박연에 의하여 국내 제작에 큰 공헌을 하였다.



나발

국악기 중에서 유일한 금속 관악기이며, 한 음만을 길게 불어낼 뿐이고 가락은 없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태평소,

나각, 자바라, 징, 용고와 대취타에 쓰이고 있다.

자료 : 재미있는 국악길라잡이. 1994.

어린이 국악교육의 실제. 1994.

전통건축양식의 공간적 이해

궁궐

궁궐은 임금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들을 보필하면서 통치를 수행하는 군신들을 위한 업무 및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진다. 궁궐건축은 지배자의 절대권위를 상징적으로 표출해야 하므로 정전을 중심으로 회랑(건물 본체의 좌우, 또는 건물을 둘러싼 통행의 목적으로 세운 건물)의 일곽은 정연한 좌우대칭형으로 배치한 것과 유사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이 있으며,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터조차 찾지 못한 많은 궁궐이 있어 왔다.

사찰

사찰은 불교가 도입된 삼국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과 불교적 교리에 따라 그 배치기법과 공간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세계를 현세에 암시하며 부처의 가르침을 도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종교적 배경과 당시 궁궐에 버금가는 최고의 건축으로서 엄격한 권위성을 표출하고자 한 사회적 배경, 그리고 한국의 자연지세에 어울리게 건물을 배치한 지리적 배경 등이 시대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내외부 공간의 연출을 달리하여 왔음을 말해 준다.

향교와 서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건축으로 공자나 그의 제자 그리고 역대 선현들의 가르침을 기리고 공부하기 위한 곳이다. 따라서 역대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이들을 기리는 절대위식 공간인 제향공간과 이들의 가르침을 학습하는 강학공간으로 구분된다.

주택

주택은 상류주택과 민가로 구분된다.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은 유교 정책에 따라 남녀유별과 신분의 구분에 의한 건축계획이 이루어져 사랑채, 안채, 행랑채와 이에 부속되는 마당으로 공간이 구성되는 것이 통례이다. 민가는 일반서민의 생활과 지역적인 자연여건이 더 우위를 차지하며, 생활공간인 건물과 작업공간인 마당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적이다.

전통건축양식의 구조적 이해

기단

건물이나 탑, 기타 이와 유사한 축조물의 지면을 주변보다 높게 올려 쌓은 것을 말한다.

초석

기단 위에 놓아 기둥을 받치며 기둥의 무게를 지면으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部材)를 말한다. 형태에 따라 원형, 사각형, 팔각형 등으로 가공하거나 적당한 크기의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기둥

초석 위에 세워져 지붕과 가구 즉 상부 무게를 지탱해주는 부재를 말한다.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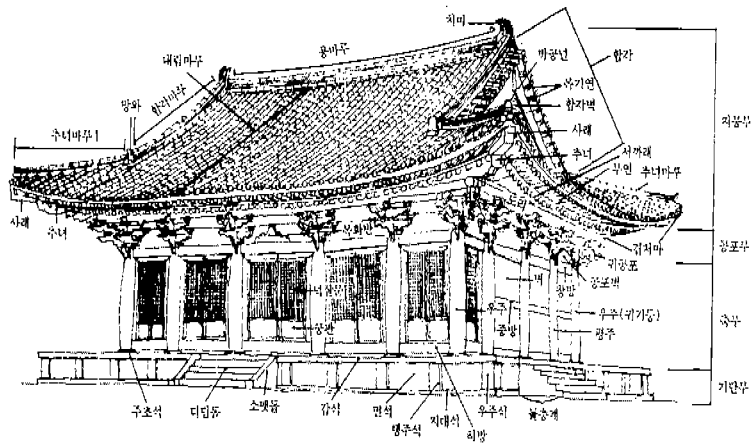
전통 목조건축에서 앞으로 내민 처마(지붕이 처마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즉 지붕이 벽체의 밖으로 나온 부분)를 안정되게 받치며 그 무게를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시켜주기 위해 기둥 위에서부터 대들보의 아래까지 짧은 여러 부재를 중첩하여 짜맞추어 놓은 것을 말한다.

가구

기둥이나 공포 위에 얹어 지붕의 틀을 구성하는 부재들로 지붕의 무게를 고루 분산시키면서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나 구조물을 총칭한다.

지붕

벽체 위에 설치하여 건물의 최상부를 이루는 구조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대부분 목조건축의 지붕은 경사면으로 이루어지되 지역, 기후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상부를 덮는 재료와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구성부재

자료 :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1994.

우리의 춤

우리의 춤

우리 음악과 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 놀이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음악과 춤은 함께 어우러져 왔다. 마을 전체의 큰 마당과 거리, 그리고 골목에서의 길놀이 등은 서민의 생활 속에 어우러지는 음악과 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춤에는 우리의 음악의 가락과 억양, 그리고 고유 의상 속에서 발달해왔기 때문에 우리 만이 가질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이 흐르고 있다. 가락과 춤, 멋과 흥과 감정의 춤인 우리 나라의 춤사위는 민족의 영원한 멋의 모습, 활달하고도 흥겨운 민족의 춤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의 멋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리듬을 갖고 있으며 육체적인 움직임 속에서 그들 각자의 리듬을 이용하고 있다. 리듬은 분절된 마디와 신체, 신체 동작에서의 시간과 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넓은 의미로서의 청소년의 신체 표현은 춤과 관련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음악 리듬에 있어서 신체 표현은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를 신체 동작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소년의 온 몸을 통해서 반응시키는 중요한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풍부한 신체 표현은 흥겨운 몸동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음악과 신체 표현의 관계는 음악을 효과적으로 체득하기 위하여 신체 표현을 빌린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고유 음악에서 가장 발달한 음악의 기본 요소는 리듬이다. 한국 음악의 리듬은 민속 예술의 고유한 형태인 민속춤에서 그 특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 춤의 분류

궁중무용

궁중의 향연이나 국빈을 위한 연회 또는 나라의 경사 때 추는 춤으로 대부분 왕실의 존엄과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화려한 무복과 도구로서 우아한 음악에 맞추어 장엄한 춤사위로 총과 예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춤은 춘앵무, 처용무가 있다.

민속무용

생산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민중의 생활체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천신제, 지신제, 부락제 등 각종 행사와 대중이 즐기는 세시풍속 가운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고 발달되었다. 표현형식은 민중생활의 실체를 자유로운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춤은 살풀이, 승무, 강강술래, 농악, 무속춤이 있다.

• 살풀이춤

무속의식에서 ‘액을 풀어낸다’는 뜻으로 무속에서 비롯된 민속춤의 한 갈래이다. 흰 저고리와 치마에 버선, 옷고름이 늘어진 복장에다 하얀 수건을 가지고 춤을 춘다. 수건을 왼팔, 오른팔에 얹고, 던지고, 떨어뜨리고, 집어 들고 일어서 빠른 장단에 맞추어 공간에 수건을 휘날리며 추는 춤. 정중동의 미가 극치를 이루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춤이다.

• 승무

무복과 장삼의 율동, 그리고 복놀이가 조화를 이루는 춤으로 예술 본연의 내면적 상을 그림. 승무에서 복은 매우 중요한 무구로 인간적인 고뇌, 환희, 한 등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긴 소매가 마치 날개, 연 또는 구름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복채를 빼고 점점 동작이 빨라지면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경기형과 호남형(이매방류)이 있다.

• 강강술래

호남지방의 집단무용으로 삼한시대의 제천의식에서 5월의 기풍제와 10월 추수감사제를 행한 집단원무에서 유래함. 우리나라 부녀자들의 대표적인 집단무용으로 한가와 대보름에 행해지는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이다. 강강술래의 어원은 ‘강’이 ‘원(圓)’를 뜻하고 ‘술래’는 ‘둘레’라는 뜻으로 ‘주위를 경계하라’는 뜻을 지닌다. 이 춤은 주로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춤과 노래와 오락의 총체적인 춤으로 놀이성이 강하다. 하체 중심의 역동적인 율동으로 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생력으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뜻에서 보름달을 의미하는 큰 원형을 이루며 진행한다. 소리춤의 하나이다.

• 농악

팽과리, 징, 장고, 북, 소고라는 타악기로 이루어지는 춤. 팽과리의 쇧가락이 음악의 단위가 되어 가락의 변화를 주도하면서 흥겨운 가락을 연주한다. 옛날에는 농악을 ‘풍물’, ‘풍장’, ‘사물’, ‘매구’, ‘두레’, ‘걸궁’, ‘걸립’ 등으로 불렀으며 나쁜 일을 쫓고 좋은 일을 맞이하는 것이 농악의 목적이다.

농악의 춤 가운데 보편화되어 있고 예술성이 짙은 춤은 부포놀이(쇠꾼의 춤), 설장구춤(장구잡이의 춤), 북꾼들의 춤, 긴 춤과 채상모놀이춤(소고잡이가 추는 춤)이 있다.

농악의 내용은 연희 목적에 따라 토착신앙과 결부되어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농악, 농민들이 노동의 고달픔을 잊고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노작농악, 전문적인 직업농악단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걸립을 하는 걸립농악, 그리고 마을사람들의 친목이나 단합을 위해 예술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연희농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의식무용

문묘와 종묘의 제사 때 추는 춤(일명 ‘일무’), 불교의 재의식에서 추는 춤(일명 ‘작법’)이 있다. 작법의 대표적인 춤은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이 있다.

향토무용

민속무용의 한 갈래이다. 원시적 신앙행사나 세시풍속의 행위에서 발생된 것 가운데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방에 뿌리를 박고 토착되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 안에서만 성행하고 성장하여 현재

까지 전해진 춤을 말한다. 대표적인 춤은 탈춤이 있다.

- 탈춤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공연하는 연극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속 춤 가운데 연극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춤으로 서민계층의 생활경험을 무용극처럼 엮어가면서 흥과 난장판을 이루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 준다.

우리 탈춤은 재담(대사) 위주의 전개방식이 아닌 가무적인 요소가 우세하다. 즉 음악반주에 춤이 주가 되고 노래가 따르는 가무적 부분과 말없는 몸짓과 덕담, 재담(대사가 따르는 연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탈춤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개별적인 마당으로 구성됨으로써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보여준다.

탈춤은 사회의 부도덕 고발, 양반계급 야유, 승려들의 파계 비난, 축첩관계 풍자 등 민중의 불만 표현, 인간 사회의 잡다한 사상을 해학적, 풍자적으로 다루어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

기본 보법

- (1) 오른발 내딛기(1장단 1보법)
- (2) 오른발, 왼발 내딛기(1장단 2보법)
- (3) 오른발, 왼발 내딛기(1장단 4보법)
- (4) 발 들기(1장단 1보법)
- (5) 발 들기(1장단 2보법)
- (6) 세발 들기(1장단 2회)
- (7) 잔걸음(1장단 1회)
- (8) 잔걸음(1장단 2회)
- (9) 제자리 돌기(1장단 2보법)
- (10) 잔걸음하며 돌기(1장단 1회)
- (11) 제자리에서 뛰기(1장단 4회)
- (12) 전진하면서 뛰기(1장단 2회)
- (13) 뒷발차면서 뛰기(1장단 4회) : 제자리 또는 전진하면서
- (14) 모아 뛰면서 뒷발 차기(1장단 2회)

- (15) 한발 들고 뛰기(1장단 1회)
- (16) 한발 씹 쏘아 모아 뛰기(1장단 2회)
- (17) 앉았다 서면서 발바닥 대기(1장단 2회)

기본 팔사위법

- (1) 오른팔 펴들기(1장단 1회)
- (2) 왼팔 펴들기(1장단 1회)
- (3) 양팔 펴들기(1장단 1회)
- (4) 양팔 내려감기(1장단 1회)
- (5) 양팔 내려감기(1장단 2회)
- (6) 양팔 내려감기(1장단 4회)
- (7) 양팔 펴서 내려감기(1장단 1회)
- (8) 양팔 펴서 내려감기(1장단 2회)
- (9) 양팔 돌리기(1장단 1회)
- (10) 양팔 돌리기(1장단 2회)
- (11) 양팔 돌리기 (1장단 4회)
- (12) 오른 손으로 머리 감아주기(1장단 1회)
- (13) 양손 바꾸어 감아주기(1장단 2회)
- (14) 오른손 열러주기(1장단 4회)
- (15) 머리 위에서 두 팔 좌우로 열러주기(1장단 2회)
- (16) 머리 위에서 두 팔 좌우로 열러주기(1장단 4회)
- (17) 머리 감아서 펴주기(1장단 2회)
- (18) 머리 감아서 펴기(1장단 4회)
- (19) 어깨춤(1장단 2회)
- (20) 어깨춤(1장단 4회)
- (21) 엉덩이 흔들기(1장단 1회)
- (22) 두 발 모아 위로 뛰기(1장단 1회)
- (23) 한 발씩 엇비껴 들고 뛰기(1장단 1회)
- (24) 한 발씩 엇비껴 들고 뛰기(1장단 2회)

자료 : 어린이 국악교육의 실제. 1994.
한국의 춤. 1994.

참 고 문 헌

- 김해성(1991). 현대미술을 보는 눈. 서울:열화당.
- 김정수·고춘선·허화병(1990). 초·중·고 교사를 위한 전통음악학
습지도법. 서울:세광음악출판사.
- 김매자(1994). 한국의 춤. 서울:대원사.
- 김원룡(1994).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서울:예경.
- 김춘일·손영수 편역(1996). 재미있는 조형놀이. 서울:미진사.
- 경상남도교육청(1992). 학생야영수련프로그램. 경상남도:경상남
도교육청.
- 나정태(1995). 민화그리기. 서울:대원사.
- 문형준(1996). 아동미술실기교실. 서울:미진사.
- 박용숙(1991). 한국화감상법. 서울:대원사.
- 반영환(1992). 한국의 성악. 서울:대원사.
- 송수남(1989). 한국무용사. 서울:금광.
- 이강근(1993). 한국의 궁궐. 서울:대원사.
- 이경우외(1995). 5개국 전래 동요에 관한 연구. 서울:창지사.
- 이난영(1995). 토우. 서울:대원사.
- 이성재(1994). 재미있는 국악길라잡이. 서울:서울미디어.
- 안영기·김춘일(1995). 꾸미기와 만들기. 서울:미진사.
- 임재해 편(1988). 한국의 민속예술. 서울:문학과 지성사.
- 유홍준(1996).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 서울:창작과 비평사.
- 윤열수(1994). 민화이야기. 서울:디자인하우스.
- 정성자(1994). 어린이 국악교육의 실제. 서울:창지사.
- 정병호(1993). 한국의 민속춤. 서울:삼성출판사.
- 최성자(1995). 한국의 미:선 색 형. 서울:지식산업사.
- 최완기(1995). 한국의 서원. 서울:대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청소년연맹(1985). 시조의 이론과 실제(지도자교재). 서울:
한국청소년연맹.

- 허 군(1995).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 : 교보문고.
- 한명희(1994).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 조선일보사.
- 한복희(1989). 팔도음식. 서울 : 대원사.
- 홈스보움·랑거 편, 최석영 역(1995).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울 : 서경문화사.
- H. 리드, 윤일주 역(1991).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 을유문화사.

